

발간등록번호

11-1140237-000015-10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날씨,
오늘도 맑음!

9.307 likes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CONTENTS

문학 부문

대상 거짓말 그림자 이야기	08
최우수상 원칙과 인정 사이	16
최우수상 가족을 위해	22
우수상 부정부패 지우개	36
우수상 푸른 숲	58
우수상 단풍이의 청렴 대모험	66
장려상 피프틴 피플	72
장려상 4학년 청림이의 일기	78
장려상 페어 트리(Fair Tree)	84
장려상 흑염소의 검은 마음	88

영상 부문

대상 함께해요, 청렴세상	96
최우수상 나부터 실.행.함	98
최우수상 SO SIMPLE	98
우수상 별일 없는 직장 생활 - 청렴 공정 평등 바르게 푸르게	98
우수상 청렴의 6덕목	98
우수상 Clean Everyday	98
장려상 청렴의 온도	99
장려상 청렴, 공정, 행복	99
장려상 청렴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99
장려상 함께 만드는 청렴한 세상	99

디자인 부문

대상 청탁없는 대한민국 자랑스런 희망한국	102
최우수상 공정한 세상 청렴한 나라	102
최우수상 흰 옷과 청렴	103
우수상 가치있는 양심	105
우수상 승진 축하해, 김대리	106
우수상 나의 채용일지	109
장려상 가치로 빛나는 청렴한 일상	111
장려상 부패공주와 일곱난쟁이	112
장려상 천하제일 청렴대회	114
장려상 어머니의 봉투	116

캐릭터 부문

대상 청렴지킴이 쾌청이와 맑음이	122
최우수상 청렴을 지키는 알약 용사! 청용이	122
최우수상 풍천이	123
우수상 청랑이와 청열이	123
우수상 회사원 여우	124
우수상 응아&호야가 전하는 오늘의 청렴날씨 : 맑음!	124
장려상 청렴 1급수에서 태어난 청이와 럽이	125
장려상 청렴동이와 해청이	125
장려상 청렴 타이거	126
장려상 청렴정신 사군자 다힘이와 별내	126

백일장 부문

대상 청렴한 선거	130
최우수상 정직한 씨앗을 키우자	130
최우수상 정직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131
우수상 정직에 대한 나의 경험	131
우수상 정직의 등산로	132
우수상 정직하면 좋은 점	132
장려상 바보같던 나	133
장려상 정직한 기호 3번	133
장려상 청렴	134
장려상 내 마음에 정직한 씨앗	134

01



문학 부문

대상	거짓말 그림자 이야기
최우수상	원칙과 인정 사이
최우수상	가족을 위해
우수상	부정부패 지우개
우수상	푸른 숲
우수상	단풍이의 청렴 대모험
장려상	피프틴 피플
장려상	4학년 청림이의 일기
장려상	페어 트리(Fair Tree)
장려상	흑염소의 검은 마음



거짓말 그림자 이야기

| 흥건화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 민수가 살고 있었다.
민수는 유쾌한 소년이었지만, 자주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자가 걱정스러웠다.

“할아버지 오늘 산을 넘어 옆 동네에 갔는데 호수에서 고래를 보았어요! 고래가 저에게 ‘민수야 넌 정말 용감하고 멋 있구나’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어제 도서관에서 책 10권을 읽었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쉬는 날이래요!”,
“할아버지 이 사탕은 가게 사장님이 제가 예쁘다고 공짜로 주신거예요!”

“정말 그랬니 민수야?”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쳐다 보았다.

그러자 하루는 할아버지가 민수에게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할아버지 이 상자 안에 있는 건 무엇이에요?”
민수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할아버지는 상자의 먼지를 손으로 훔훔 털으며 말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은 ‘거짓말 그림자’란다. 거짓말을 하면 그림자가 점점 커지게 되는 그림자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상자를 열며 설명했다.

그림자는 작은 유리병에 담겨 있었으며 검은 색으로 신비한 빛을 냈다. 민수는 그것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거짓말 그림자?” 민수가 물었다.

“그래, 민수야. 이 그림자는 거짓말을 하면 커지게 되는 특별한 그림자야. 민수 너는 이 특별한 그림자를 갖고싶으냐?”

민수는 그림자의 반짝이고 영롱한 빛에 매료되어 갖고싶다고 대답하였다.

“갖고싶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거짓말 그림자를 잠시 빌려줄 것이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유리 병의 뚜껑을 열고 민수의 뒤에 부려주었다.

유리 병에서 나온 검은 물체는 민수의 등에 붙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와 민수의 그림자가 되었다.

민수는 그림자가 마음에 들어 방방뛰며 좋아했다.

“이야 내 그림자는 특별해 뭔가 반짝이고 신비로워보여!”

그러고 며칠 후,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치르던 민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주변 친구들은 열심히 문제를 푸는데 나만 답을 모르는 것 같았다.

불안한 마음에 옆 친구의 답안을 힐끔 보았다.

친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민수가 자신의 답안을 보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를 어쩐다..’

이번 시험을 잘 보고 싶었던 민수는 고민이 되었다.

다시 한번 친구의 답안지를 보았지만 선생님도 주변 친구들도 아무도 민수가 친구의 답안을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결국 민수는 친구의 답을 보고 베끼기로 결심했다.

몰래 거짓으로 시험을 잘 보게된 민수는 찻찻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험을 잘 보았다는 마음에 기뻐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민수는 그림자가 조금 커진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후 민수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었다.

민수의 어머니가 책 읽기 숙제를 다 하고 놀라고 하자

민수는 이미 책을 다 읽었다고 거짓말했다.

“엄마 나는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나 민수는 책의 첫페이지도 넘기지 않았다.

다음 날에는 학교에 가기 싫은 민수가 꾀병을 내었다

“나는 정말로 아파서 학교 못 가.”

그렇게 민수의 거짓말은 계속되었다.

“나는 그 사탕을 훔치지 않았어!”

”그 축구공은 내꺼야!“

”나는 저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

이렇게 민수의 거짓말은 점점 늘어났고, 그와 함께 그림자도 커졌다.

민수의 그림자는 이제 땅에만 붙어있지 않고 민수처럼 서서 민수를 따라다녔다.

친구들은 민수의 그림자를 보고 신기해했다.

”우와 민수야 너의 그림자는 왜 이렇게 커?“

”우와 정말 신기하다“

”민수의 그림자 부럽대! 나도 갖고 싶어!“

민수는 자신의 그림자가 커질수록 기분이 좋았다. 자신이 특별한 것 같고 신기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림자는 이제 민수의 어깨 위에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그림자가 너무 커져서 점차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민수가 거리를 걸을 때마다 그림자는 민수를 따라가며 사람들의 길을 막았다.

민수가 앉으면 그림자는 민수 주변의 의자나 탁자를 밀쳐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그림자는 옆 사람의 접시를 밀어 떨어뜨리고 친구들도 밀어냈다.

민수의 학교 수업에서도 그림자는 문제였다.

그림자가 교실 내에서 너무 커져 선생님의 칠판 글씨를 가리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은 민수의 그림자 때문에 칠판을 볼 수 없게 되어 불편했다.

민수의 그림자는 단순히 커진 것만이 아니라 모양새도 점점 더 무시무시해졌다.

그림자는 민수의 거짓말이 계속됨에 따라 더욱 거칠게 변해갔다.

민수의 그림자는 거대해져 갈고리와 같은 손을 가지게 되었고 덩치도 커져 무섭게 보였다.

어린 아이들은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하며 울기도 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민수의 그림자를 점점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신기함과 호기심은 이제 공포로 바뀌었다.

“민수야, 너의 그림자는 왜 저렇게 생겼어?”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

민수는 답을 내뱉으며 눈을 피했다.

“민수야, 너의 그림자가 저렇게 생긴 이유가 뭐야? 왜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야?”

또 다른 친구가 물었다.

민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민수는 그림자가 왜 저렇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친구들은 점점 민수를 피하기 시작했다.

민수가 다가가면 친구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났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민수의 그림자를 보고 소리치며 도망갔다.

민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의 거짓말로 인한 그림자의 형체는 이제 민수에게도 무서워졌고

민수 자신도 거울을 볼 때마다 그림자의 갈고리 손을 바라보며 끔찍한 기분을 느꼈다.

민수는 결국 할아버지에게 상의를 구하러 갔다.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라 들어온 그림자가 문보다 커 문틀이 박살나 버렸다.

민수는 울먹이며 할아버지에게 그림자를 가리켰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슨 상황인지 다 이해하는 듯 보였다.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해주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민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민수야, 이 할아버지도 어릴 적에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단다. 그 때도 이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녔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거짓말들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어. 그리고 그림자는 다시 작아졌단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조심스레 희망을 느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저의 거짓말을 모두 고백하고 사과하면 그림자가 작아질까요?”

그러나 민수는 다시금 침울해졌다.

“하지만 할아버지, 어떻게 내가 한 거짓말들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답했다.

“민수야 이해한다. 거짓말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란다. 그러나 잘못된 일을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의 고백을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진실로 사람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올바른 길이니까.”

민수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가셔지고 대신 희망과 용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정말 그럴까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줄까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야, 사람들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너의 솔직한 고백과 사과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할 거야. 네가 한 거짓말보다 네가 보이는 용기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진정이 되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진실의 길을 걷고 싶었다.

“할아버지, 그럼 저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천천히 시작하면 돼, 민수야. 먼저 너의 엄마와 아빠, 친구들에게 한 거짓말부터 고백해 보렴. 그들에게 솔직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들은 널 이해해 주고 용서해 줄 거야.”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먼저 엄마에게 숙제를 다 하지 않았던 걸 고백하고, 친구들에게는 시험 답안을 베꼈다고 고백했다.

엄마는 민수의 거짓말들을 듣고 잠시 당황했으나 민수의 눈에 보이는 진실된 뉘우침과 용기 있는 고백에 용서의 마음으로 안아주었다.

“민수야, 너가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야. 나도 네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자랑스러워.” 엄마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다.

친구들에게도 고백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친구들은 민수가 시험 답안을 베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중에는 민수를 비난하는 친구도 있었다.

“민수야,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정말 실망이야!” 한 친구는 화를 내며 말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 친구에게도 사과했다.

“진짜 미안해.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걸 알아.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일 절대로 안 할게. 너희들을 실망시킨 거, 정말 미안해.”

그러자 화를 냈던 친구의 마음도 점점 풀어졌다.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 앞에 그 친구도 민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었다.

“알았어, 민수야. 네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는 거 보니, 나도 널 이해해.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자, 약속해.”

이렇게 민수의 거짓말 고백 여정은 하나씩 해결되어 갔다.
그리고 거짓말을 고백할 때마다 그림자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림자가 줄어들자 민수의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돌아간 민수는, “할아버지, 이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게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림자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할아버지는 민수를 기특하게 바라 봤다.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할아버지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림자가 완전히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자, 할아버지와 민수는 함께 그림자를 작은 병에 넣었다.
병은 투명하게 맑았고 그 속에서 그림자는 더 이상 무시무시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자를 담은 유리병을 오래된 상자에 넣었다.

그들은 서로 미소 지으며 창밖에서 비추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원칙과 인정 사이 | 김근수

• 주요 등장 인물 소개

박재민 이 작품의 주인공이며 A기업의 제품 출고 업무를 맡은 신입사원. 동료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갈등한다. / **이수현** A기업의 경리. 식당 및 사무용품 업체와 결탁하고 영수증을 위조하여 부당 수익을 챙긴다. 재민에게 부정을 들켜자 연정에 호소하여 목인해 줄 것을 간청한다. / **정지훈** A기업의 자재 구매 담당. 자재 업체들과 결탁하고 영수증을 위조하여 부당 수익을 챙긴다. 재민에게 부정을 들켜자 협박을 가하여 재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 / **김성수** A기업의 과장. 제품의 생산계획을 담당하며 발주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생산계획을 변경한다. 재민에게 부정을 들켜자 오히려 부정에 같이 동참할 것을 권한다.

시놉시스

30대 초반의 청년 박재민은 아버지의 친구 분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사무직으로 취직하게 된다. 비록 급여는 적지만, 또래 나이대의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근무하는 환경이 매우 만족스럽다. 그러나 적은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씩씩이가 과하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던 중, 여직원인 이수현의 부정을 목격하게 된다. 연심을 품은 상대인 만큼 내적 갈등이 컸으나, 동감내기이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정지훈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한다. 정지훈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가던 중 그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재민은 지훈 또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재민은 직원들 중 가장 상급자인 김성수 과장에게 두 명의 부정을 폭로하였으나 김성수 과장은 그들의 부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역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동료들에게 솔한 회유와 협박을 받으며 동료간의 정과 자신의 안위, 청렴과 원칙을 두고 갈등하던 재민은 결국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퇴사한다. 그렇게 민수의 거짓 말은 계속되었다.

“나는 그 사탕을 훔치지 않았어!”

scene 1.

그리 넓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장식품이나 화분 하나 없이 필요한 가구들만 놓여진 공간은 단조롭고 딱딱한 분위기를 풍긴다. 소파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앉아 티비를 보고 있고, 50대 중반의 여성은 테이블 옆 바닥에 앉아 사과를 꺾고 있다. 테이블의 반대편 바닥에는 30대 초반의 청년이 앉아서 사과를 집어먹고 있다.

중년 남성: (리모컨을 들어 티비를 끈 뒤 낮은 목소리로) “재민아.”

박재민: (심상치 않은 낯을 느낀 듯 긴장된 표정으로 남성과 여성을 번갈아 바라보며) “네, 아버지.”

중년 남성: (딱딱한 표정으로 재민을 내려다보며) “너, 상철이 아저씨 알지?”

박재민: (잠시 눈알을 굴린 뒤) “중소기업 하신다는 그 친구분 말씀이세요?”

중년 남성: (슬쩍 눈길을 피하듯 천장으로 시선을 돌리며) “자리 하나 마련했으니 너 거기 취직해라.”

중년 여성: (짐작했다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인다.)

박재민: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사과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네? 갑자기요? 거기 작은 회사잖아요. 급여도 적을 텐데...”

중년 여성: (사과를 들어 던지는 시늉을 하며 큰 목소리로)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는 지금은 한 푼이라도 벌고 있냐? 네가 지금 크고 작은 거 따질 때야?”

박재민: (놀란 듯 어깨를 움츠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그, 그야 그렇지만...”

중년 남성: (재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동안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시간을 달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다. 가망도 없는 미술 붙잡고 언제까지 허송세월 보낼 거냐?” (고개를 돌리고 손을 휘저으며) “긴말 할 것 없다! 다음 주부터 출근이니 그리 알아라!”

박재민: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긁적인다.)

scene 2.

넓직한 공장 부지 한 칸에 1층짜리 벽돌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유리문 옆에 걸린 녹색 현판에는 큼지막하게 ‘(주) A 기업’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공장 유니폼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과 정장을 빼입은 재민은 그 건물의 유리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중년 남성의 회색 유니폼은 기름때 하나 묻지 않은 채 잘 다려져 있었고, 그 밑으로 드러난 정장 바지와 검은 구두는 이 사람이 실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옆의 재민은 경직된 표정과 자세로 걸어가고 있다.

대표이사: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가 2공장 사무실이야. 작지?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본사에서 해주니까 여기 사무실 직원은 세 명으로도 충분했거든. 이제 네 명이 됐지만.”

박재민: (옆을 향해 비스듬히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 아니 사장님.”

대표이사: (재민의 등을 토닥이며) “사무직은 원래 대졸만 뽑는데 넌 똑똑한 거 내가 아니까 믿고 맡기는 거야. 알지?”

박재민: (옆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사람 좋은 듯 싱긋 웃으며) “그리고 누가 물으면 적당히 어디 4년제 대학 나왔다고 둘러대. 내 친구 아들이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알겠지?”

박재민: (또다시 고개를 꾸벅 숙이며)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문 손잡이를 쥐고 슬쩍 밀며) “그래, 그래. 열심히 해.”

scene 3.

대표이사가 유리문을 열자 좁은 사무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서로 마주 보게끔 붙여놓은 5개의 사무용 책상 위로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즐비하다. 사무실 한쪽에는 냉장고와 정수기, 수납장이 놓여져 있는데, 수납장에는 칸마다 간식이 잔뜩 쌓여있다.

5개의 책상 중 세 곳에만 직원들이 앉아있다. 그나마 상석으로 보이는 곳에는 김성수 과장이, 그와 맞닿은 두 책상에는 이수현과 정지훈이 서로 마주 앉아있다. 그 옆의 두 책상에는 먼지 쌓인 컴퓨터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대표이사를 본 세 명의 직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일동: (입구를 향해 허리를 깊게 숙이며) “사장님 오셨습니까?”

대표이사: (앉으라는 듯 손을 들어 까딱거린 뒤 손을 내리며) “김 과장이 생산계획에 출고 일까지 하느라 고생했지? 김 과장 편하게 해주려고 출고 담당을 따로 뽑았어.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된 박재민 씨야.” (옆에 선 재민을 돌아보며) “재민 씨, 인사해.”

박재민: (경직된 어깨를 한 채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품 출고 업무를 맡게 된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책상을 빙 돌아 재민에게 다가온 뒤 웃는 얼굴로 손을 내밀며) “반갑습니다. 생산계획을 맡고 있는 김성수 과장입니다.”

박재민: (연신 허리를 숙인 뒤 김성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김성수 과장님이시군요.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김성수: (재민의 손을 잡고 흔들며) “제 업무를 분담해주러 오시다니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밥이라도 사야겠습니까. 하하하.”

박재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을 편 뒤 속마음 더빙) ‘과장이라고? 젊어 보이는데... 30대 중반쯤 됐으려나?’

김성수: (뒤로 돌아 여직원을 향해 손을 내밀며) “이쪽은 우리 사무실의 경리이자 터줏대감인 이수현 씨. 나이는 어리지만 베테랑이죠.”

이수현: (싱긋 웃고 고개를 까딱이며) “이수현이에요. 나이는 스물아홉.”

박재민: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부끄러운 듯 눈을 내리깔며) “박재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서른하나입니다.” (이수현을 향해 눈을 들고 내리깔기를 반복하더니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속마음 더빙) ‘예쁘다... 취직하기를 잘했어.’

김성수: (다른 남자 직원을 바라보며) “서른하나라고? 지훈 씨랑 동갑이네. 이쪽은 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정지훈 씨.” (뭔가 생각난 듯 갑자기 재민을 돌아보며) “아, 참고로 저는 서른넷입니다.”

정지훈: (웃는 얼굴로 재민을 향해 걸어온 뒤 손을 내밀며) “정지훈입니다. 동갑이라니까 더 반갑네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박재민: (지훈의 손을 맞잡으며)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scene 4.

사무실 유리문이 열리며 재민이 들어온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은 뒤 자신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수현은 재민을 보며 슬쩍 웃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냉장고에서 시원한 캔 음료를 꺼내 들고 재민에게 다가온다.

이수현: (캔 음료를 재민에게 건네며) “덥죠? 출고 업무는 말이 사무직이지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박재민: (환한 표정으로 캔 음료를 받으며) “더울 때 먹는 음료가 더 맛있는 법이죠. 매번 고마워요.”

정지훈: (능글맞은 표정으로 옆자리의 재민과 그 옆에 선 수현을 번갈아 보며) “어휴. 연애는 집에 가서 해. 솔로는 부러워서 일하겠나?”

박재민: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치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수현 씨 곤란하게.”

이수현: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 곤란한데요?” (재민의 대각선 방향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후 재민을 보며 웃는다.) “너무 부정하니까 섭섭한데?”

박재민: (멍한 표정으로 수현을 바라보며) “네?”

당황한 재민의 표정을 보며 각자 재밌다는 듯 작게 웃는다.

어색한 웃음을 짓는 재민과 성수, 지훈, 수현 손으로 포커싱하며 재민 내레이션 더빙

6월 12일. 월요일. 날씨 맑음.

계절이 한 번 바뀐 만큼 어느덧 회사 일에도 적응이 됐다. 비슷한 나이대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사님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오셔서 보고를 받고 가시는 걸 제외하면, 이 사무실은 우리 넷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나쁜만 아니라 모두들 이 회사에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솔직히 월급이 꽤 적은 편인데 다들 불평 한마디 없다. 이런 말이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좀 기특해 보인다.

(김성수 과장 포커싱) 김성수 과장. 이사님이 사무실을 비우게 되면서 임의로 과장이라는 직책에 올랐다고 한다. 본인도 과장님이라는 호칭보단 형이라고 불리길 원한다. 정말 푸근한 형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좋은 사람이다. 주말

에는 골프를 치는 듯한데...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 아닌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 걸까? 모르겠다.

(정지훈 포커싱) 지훈이. 사내답고 활발한 성격의 동갑 친구. 가끔 둘이서 술도 한잔씩 하는데 항상 먼저 계산한다. 월급이 적은 것은 매한가지일텐데, 나를 신입이라고 챙겨주는 게 고맙다. 그런데... (정지훈의 시계 클로즈업) 내가 상상만 해왔던 고급 시계를 차고 있다. 부럽다. 우리 월급으로 가능한가?

(이수현 포커싱) 수현 씨. 내가 이 회사를 좋아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예쁜 분을 본 적이 있었나 싶다. 수현 씨는 날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수현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숙인다) 이상하게도 자꾸 눈이 마주치곤 한다. 그렇다면 수현 씨도 나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 아닐까? 혹시 수현씨도 나한테... 아냐, 그럴리가 없지. 그런데 수현 씨는 옷을 정말 잘 입는 것 같다. (수현의 가방을 클로즈업) 가방도 매일 바뀌는 듯하다. 짝퉁일까?

scene 5.

사무실 한 쪽의 널찍한 탁자 위에는 나무젓가락, 비닐, 휴지 등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흔적들이 놓여있다. 재민은 쓰레기를 정리하며 탁자를 닦은 뒤, 간식이 놓인 수납장에서 과자를 들고 자리로 돌아온다.

정지훈: (옆자리에서 재민과 과자를 번갈아 바라보고는 웃으며) “또 먹냐? 오늘은 지가 사왔다고 아주 간식코너를 종일 들락거리네?”

박재민: (과자를 뜯어 먹으며) “맨날 얻어먹으려니 가시방석이었는데, 오늘 같은 날 많이 먹어야지.”

정지훈: (뭔가 쾅기는 듯한 표정으로) “야. 너는 이런 거 안 사도 돼. 네 월급으로 뭐...” (작게 헛기침을 한 후 말을 맺는다.)



• 주요 등장 인물 소개

나 (차장) 일과 가정 모두 최고를 지향하는 커리어 우먼. 영주시개발공사 도시주택건설부의 차장이다. 담당하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완수하고, 당당하게 '내가 지은 집'에 입주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내가 저지른 작은(?) 부패행위가 커 커이 쌓여 엄청나고도 끔찍한 결과를 만들고 마는데... / **남편** '나'의 남편. 업무에 치여 딸의 생일을 깜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다정다감한 남편이자 아버지다. 조카가 취업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다행히 건설한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한시름 놓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족의 비극 앞에서 조카 취업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 / **소울 (딸)**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나'의 외동딸. 일과 가정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제로 또 최고인 엄마를 자신의 롤모델로 생각한다. 엄마의 모든 것을 닮고자 하는 소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족의 비극 앞에서 엄마의 실체를 알게 된다. / **저승사자** 병원에서 죽은 영혼을 저승까지 인도하는 저승의 사자. 환자였던 영혼들이 놀라지 않도록 의사 가운을 입고 다닌다. '나'와 그 가족이 당한 사고의 원인과 실제의 민낯을 하나둘씩 공개한다. / **현장소장** '나'의 담당이던 아파트 단지 건설 시공사 소속의 현장소장. 그가 고의건 실수건 저지른 크고 작은 실수와 비리들이 결국 이 사단을 만들었다.

시놉시스

눈을 떠보니 병원이다. 그리고 내 옆에 하얀 가운을 입고 서있는 낯선 남자. 그는 저승사자였다. 내가 왜 병원에 있는지 묻자 저승사자는 TV를 켜서 상황을 알려준다. 뭐? 방금 전까지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대화하던, 내가 지은 우리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저승사자 나에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며 나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는 나의 가족을 데려가려 한다. 나는 어린 딸 대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절규를 하는데, 저승사자는 자신만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족에게 '내가 가족을 위한답시고 저지른 부패행위'들을 보여준다.

우리 아파트를 짓던 당시 사업담당자로서 외근을 갔을 때 발견한, 철근과 콘크리트 부족 정황을 덮어주기 위해 뇌물을 받고 그 돈으로 딸의 생일 선물을 사는 나. 내력벽 위치를 설계와 다르게 만든 것을 무마하기 위해 채용 청탁을 하는 나. 그 결과 우리 아파트는 무너져버렸다. 이런 부패한 나의 모습에 실망한, 목숨까지 잃은 가족들은 저승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저승사자에게 죄 없는 가족 말고 차라리 이 모든 원흉인 나를 데려가 달라고 애원해보지만 저승사자는 청탁하지 말라며 거절한다. 그러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라고 절규하자 저승사자는 이승의 별을 다 받고 천수까지 누린 다음 저승에서 별을 받아야 한다는 섬뜩한 말을 남긴다. 멀어져가는 가족과 저승사자를 보며 나는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울었다.

그 때 현장소장이 준 뇌물인 검은색 신용카드를 머리맡에서 발견한다. 나는 분노에 차서 신용카드를 부숴버린다. 그리고 칠혹 같은 어둠을 지나, 뇌물로 산 생일 선물 영수증을 버리려던 순간으로 돌아간다. 나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 결제를 취소하고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감사실장에게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에서 눈물이 나지만 흐르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 청렴한 내가 가족을 살렸다.

가족을 위해

| 최재원

시나리오 본문

낯선 천장이다. 온 몸이 마치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다. 여기는 어디지? 물결무늬 석고보드 천장에서 옆으로 눈을 돌리니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서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카메라처럼 뿌연던 시야가 서서히 돌아오니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얀 옷은 가운이었다. 의사임이 분명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여...여기는 어디인가요?”

“병원이에요.”

나의 물음에 그가 차트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제가 왜... 병원에 있는 거죠? 분명 아까 전 까지만 해도 가족들이랑 새 집에 이사를 끝내고 다 같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뭐야, 기억 안 나요? 참나...”

그가 몸을 돌리고는 자신의 뒤에 있던 TV 전원을 켜다. 상당히 긴장한 표정의 아나운서와 앵커가 무어라 열심히 속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화면 아래 흐르는 자막을 유심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뭐? 우리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뒤이어 나오는 현장영상도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아까까지 나와 내 가족이 단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이제 막 새 집으로 이사한지 얼마 안 돼서 한창 들떠있었던 그리운 그 집이다. 그 집이, 처참히 부서어져 잔해가 되어있었다.

“아...아니 멀쩡한 집이 왜 무너져요?”

“네? 멀쩡이요? 파하하하!”

그가 파안대소를 했다. 제정신인가?

“아니, 의사라는 사람이 지금 저 대참사의 피해자 앞에서 웃음이 나와요? 병원장 불러와요!”

“제가 의사라고요? 저 의사 아니에요.”

“그럼 가운은 왜 입고 있는대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모골이 송연해졌다.

“저는 저승사자예요.”

“저...저승...사...자...”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고 싶었지만 온 몸이 말을 안 들었다.

“요즘은 거의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니 저희도 심리적 충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냥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 아직 안 죽었어요. 정확히는 죽을 때가 아니지.”

“그...그럼 왜 온 거죠?”

“엄마...”

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니 사랑하는 내 딸과 남편이 보였다. 웃은 환자복인데,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소울아! 여보! 둘은 왜 피를 그렇게 흘리고 있어?”

“두 분은 저를 따라 저승으로 가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사자님, 저는 데려가셔도 되는데 부디 제 딸만은...”

“엄마... 나 엄마 떠나기 싫어...”

소울이가 내 병원복을 잡아당겼다. 자식을 먼저 보낸다니, 엄마로서 용납이 안 됐다. 저승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안 돼요! 안 돼! 내 딸 보낼 수는 없어.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데! 고3이라고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했는데! 대학도 가야하는데! 시집도 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차라리 살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린 나를 데려가요!”

저승사자가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이야기 했다.

“그러게, 그 때 왜 그랬어요? 하아... 하긴 누릴 만큼 누리기는 했네. 온갖 부정부패를.”

“네?”

갑자기 주마등같은 것이 스르륵 스쳐지나갔다. 그렇지만 분명 주마등은 아니었다. 이 주마등 비슷한 것을 내 가족

과 저승사자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의 주마등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겠다. 흐르던 장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 내가 외근을 갔을 때로 멈췄다. 현장 소장이 내 옆에서 굽신거리고 있었다.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콘크리트도 규정보다 적게 타설하시고, 철근도 이만큼 누락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30%밖에 진행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아이 죄송합니다. 준공일은 계속 다가오는데 자재 납품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일부만 이렇게 됐습니다. 딱 그만큼만 이렇고 나머지는 제대로 다 했습니다.”

“담당자인 제가 안 이상 그냥은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리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고 차장님, 차장님께서 그러시면 저희 죽습니다 진짜로.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정말로 여기만 이렇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애처롭게 부탁하니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다른 곳은 다 규정대로 진행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처음에는 제대로 하다가 중간에 잠깐 자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재가 잘 들어오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실수 정말로 없을 겁니다.”

“하... 일단은 내부 논의를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때 소장이 나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게 보였다. 검은색 신용카드였다.

“이게... 뭔가요?”

“저희 회사 법인카드입니다. 월 한도 200만원이니까 매달 필요하신 거 있으면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건 분명 뇌물이다. 당연히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때 이제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내 딸 소울이가 한 달 전에 한 말이 뇌리를 스쳤다.

‘엄마, 나 태블릿 한 대만 사주면 안 돼요? 인강 볼 때 쓰려 하는데... 좋은 거까지는 필요 없고 인강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친구들은 다 그거로 인강 보면서 진도도 더 빨리 나가는데 저만 없어서 조금 뒤처지는 거 같아서요.’

잠시 망설이던 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카드를 받았다.

“그럼 이번은 그냥 조용히 할게요. 근데 진짜 앞으로는 꼭 적합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앞으로는 차장님 걱정시켜드릴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장님!”

소장이 90도 인사를 두 번이나 연거푸 하며 말했다. 이윽고 장면은 다시 흘러 내가 백화점에 간 장면에서 멈추었다. 나는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태블릿 PC에 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태블릿 얼마예요?”

“네, 80만원입니다. 혹시 직접 쓰시려는 건가요?”

“아뇨,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 인강 보겠다고 태블릿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하나 사주려고요 하하!”

점원이 웃으면서 옆의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따님이 고등학생이면 유행에 민감하시겠네요. 그러면 요즘 학생들은 이 제품을 더 좋아합니다. 가격은 20만원 정도 더 비싼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고 성능도 좀 더 좋아서 따님이 훨씬 좋아하실 겁니다. 무게도 이게 더 가볍고요.”

“그래요? 흠... 뭐 그게 유행이라 하니 그럼 그거로 주세요. 아, 그리고 그 펜? 여기다 필기하는 거 그것도 같이 살게요”

“네 그러면 다 해서 120만원인데, 저희 지금 행사 중이어서 5퍼센트 할인 들어가면 114만원입니다. 저쪽에서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점원의 안내에 따라 나는 진열대에서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점원이 제품을 종이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결제는 카드로 하실까요?”

“네 카드로 할게요.”

나는 지갑에서 소장이 준 검은색 카드를 꺼내 건넸다. 점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꽂고는 잠시 후 인쇄되는 영수증과 함께 돌려주었다.

“114만원 결제 도와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직원이 건넨 종이가방을 들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은 구겨서 그대로 출입구 옆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다시 장면이 흘러 그 날 저녁의 우리 집에서 멈추었다. 나와 딸, 남편 세 사람이 케이크를 가운데 두고 오붓하게 앉아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울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나와 남편의 노래가 끝나자 고깔모자를 쓴 예쁜 딸이 웃는 얼굴로 촛불을 후 불어서 껐다. 우리 세 사람은 박수를 쳤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이걸 선물~”

내가 종이 가방을 건네자 딸이 웃으며 받았다. 그리고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꺼내어 확인하고는 얼굴이 더욱 환해지며 함박웃음을 만개했다.

“엄마! 이거 진짜야? 대박!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

“어유 여보, 저거 비싸지 않았어? 저건 또 무슨 돈으로 샀대? 나도 귀땀 좀 해주지.”

남편의 질문에 나는 다소 멧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그... 회사에서 이번에 행사 하나 했는데, 거기서 내가 잘 해서 상금을 좀 받았어. 그거로 산거야. 하하...”

“이야, 우리 와이프 능력자네! 상금도 타고! 하하하! 이 집도 여보가 지었잖아!”

“그...그럼! 나 이런 여자야~”

“우리 엄마 짱! 엄마 진짜 잘 쓸게요!”

딸이 태블릿PC 상자를 흔들며 말했다.

“그래 우리 딸~ 그거로 너무 놀지만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당연하지! 진짜 인강 보려고 사 달라 했던 거예요!”

그 때 남편이 내 어깨에 팔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했다.

“우리 소울이는 능력 좋은 엄마 만나서 좋겠다!”

“히히 당연하지! 근데 아빠는 선물 없어요?”

“어? 어...그게...”

망설이는 남편에게 쏘아붙이듯 이야기 했다.

“여보, 설마 딸 생일을 깜빡 했어?”

“아...아니야! 그럴 리가. 내 생일은 잊어도 딸 생일은 반드시 기억하지. 바빠서 살 시간이 없었어! 딸, 아빠는 선물로 용돈 줄게. 자 여기 20만원.”

“뭘 그렇게 많이 줘요. 그냥 10만원만 받을게요. 고마워요 아빠!”

주마등같던 장면이 끝나고 다시 병실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설마 그거... 뇌물 받아서... 산거야?”

딸의 얼굴을 보니 실망했다는 표정이었다. 내 옷을 붙잡고 있던 손도 놓았다.

“아... 아니야! 그건 뇌물이 아니라...”

“뭐가 뇌물이 아니야! 난 진짜 엄마가 순수하게 자기 노력으로 얻은 상금으로 사준 건물 알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는데...”

딸의 이야기에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분명 나는 그동안 딸 앞에서 항상 떳떳하고 멋진 엄마였는데. 내 일과 가정, 둘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는 법 없는 완벽한 워킹맘이었는데. ‘나도 나중에 크면 엄마 같은 엄마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항상 딸아이의 존경을 받는 그런 엄마였는데. 그런 내 소중한 하나뿐인 딸에게 모든 치부를 보이는 기분이었다.

“소울아, 그래도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사실이잖아.”

남편이 소울이의 양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소울이는 오른손을 들어 왼쪽 어깨에 올라온 남편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가족... 맞아요. 가족은 꿈쩍이도 챙기셨죠.”

저승사자의 이야기에 가족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다시 아까와 같은 주마등 비슷한 것이 펼쳐졌다. 이번에는 어느 날 출근 시간이었다. 무너진 지금 아파트에 입주하기 3년 전인 어느 전셋집이었다. 남편은 아침밥인 샌드위치를 먹다가 갑자기 울리는 전화기를 들어보고는 전화를 받았다.

“응 누나. 아... 현성이 또 떨어졌어? 아이고... 뭐? 벌써 10번째 떨어졌다고? 에휴... 누나도 누나지만 현성이 그 녀석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누나, 현성수도 얼마나 붙고 싶었겠어. 엿저녁에 술 그렇게 먹고 들어왔어도 좀 이해해줘. 지켜보는 누나도 힘들겠지만 본인은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응응 알았어. 현성이 해장국 잘 끓여주고. 응~”

“왜, 현성이 또 떨어졌대?”

나의 물음에 남편이 한숨을 쉬고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응. 개가 아무리 학벌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집이 어려우니 일부러 성적에 맞는 곳이 아니라 집 근처 학비 싼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한 건데, 자격증 여러 개 따고 해도 학벌 때문에 안 받아 주나봐. 에휴... 어젯밤에는 자기도 너무 힘들었는지 술이 진탕이 돼서 들어왔대. 불쌍해서 어떡해... 개는 4년 내내 과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진짜 이놈의 학벌주의...”

나는 입에 잔뜩 문 샌드위치를 꿀꺽 삼키고 이야기했다.

“어휴 그러게. 현성이 정도면 실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인성도 바른데 참... 공기업은 생각 없대? 그래도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학벌은 안 보는데...”

“안 그래도 누나가 물어봤는데, 자기는 사기업 가서 해외 유명한 랜드마크 같은 거를 짓고 싶대나봐. 공기업 가면 그런 건 안 하잖아. 이제 고영E&C만 남았다는데...”

“응? 거기 우리 회사 현장 시공사인데? 거기 건설하고 괜찮아. 잘 되면 좋겠네 진짜.”

“그러게...”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샌드위치를 한 입 물었다. 그때 사랑스러운 딸이 눈을 부비며 식탁으로 다가왔다.

“엄마 아빠 잘 잤어요? 하아암”

“응~ 딸, 잘 잤어? 와서 밥 먹어.”

딸이 내 옆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집어 드는 찰나, 갑자기 장면이 긴급히 움직였다. 그리고는 내가 우리 아파트 건설

현장에 외근을 나갔던 그 시공간에서 멈췄다.

“아니 소장님! 다시는 저 난감하게 안 하신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차장님... 저는 제대로 시킨다고 시켰는데, 이 인부들이...”

“인부 분들이 왜요! 설마 책임 전가 하시려는 건가요? 여기 있어야 할 벽이 10cm나 밀린 거는 인부 분들 실수라기보다는 시공사의 관리감독 문제 아닌가요?”

내가 도면 상 내력벽이 있어야 할 위치와 실제 세워진 내력벽을 번갈아 가리키며 말하니 현장소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답했다.

“이게... 저희도 노력한다고 하는데, 하도급 업체랑 거기 직원들이 너무 대충하려고 합니다. 매번 잡아내고, 내쫓고, 시정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미처 못 본 거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차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초반에 진행할 때 신입사원이 투입됐는데, 그 사원이 이 부분을 미처 못 본 거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이 처음이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를 너무 믿었나봅니다.”

소장이 굵신거리며 이야기 할 때 나는 천장을 가만히 보기만 했다. 당시의 나는 뭔가 멍하니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때의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안다.

“신입사원... 그래요 신입사원 분께서 놓쳤다 하셨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이 경험이 없다 보니...”

“소장님, 지금 거기 공채 중 아니신가요?”

내가 시선을 천장에서 소장을 향해 옮기며 이야기 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면접 진행 중일 겁니다. 발표까지 한 사흘 남았죠?”

“소장님네 회사 그래도 나름 규모도 있고, 조만간 대기업까지 갈 회사인데,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면 이번 건 그냥 눈감아드릴게요.”

“뭔가요?”

“그 회사 지원자 중에 아마 조현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명주대학교 졸업자구요. 개가 제 시택 쪽 조카인데, 똥똥함

니다. 관련 자격증도 2개 있을 거예요. 그 친구 최종합격 시켜주시면 제가 이번 건 어떻게든 무마시켜볼게요.”

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네 차장님. 제가 인사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조현성씨는 무조건 합격시키게 만들겠습니다.”

“네 좋아요. 겨우 10cm 차이인데 큰일 나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여기 조금만 보강해주시고, 제가 어떻게든 감리 설득 시킬 테니까 채용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현장 소장이 연거푸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다시 주마등 같은 장면이 이동하여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에 멈추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어 누구인지 확인하고는 전화를 받았다.

“응 누나. 어. 뭐? 현성이 합격했다고? 아이고 진짜 축하해! 누나랑 매형도 그렇지만 현성이 그 녀석 한시름 놓았겠네! 하하! 누나도 너무 고생했어. 현성이 그만큼 컸으면 아주 잘 키웠다 진짜. 응 저녁은 지금 먹고 있지. 빨리 현성이 녀석 도착하면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줘. 응. 응~ 축하해!”

남편이 환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아빠, 현성 오빠 취업했대?”

“응! 드디어 11번째로 면접 본 고영E&C라는 회사에 합격했다 하네. 원서 지원한 회사 중 마지막 남은 곳이었다고 하는데 어휴 이 얼마나 다행이야.”

“어머~ 너무 잘 됐다. 여보, 현성이랑 소울이 고모님께 축하금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맞네. 모바일로 보내지 뭐. 보자... 누나... 20만원... 보내니... 보태서... 현성이... 맛있는 거... 사줘... 오케이 보냈다!”

남편이 휴대폰을 들어 시누이에게 송금을 하고는 다시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끝으로 주마등 비슷한 장면이 모두 끝났다. 나는 누워있는 채 남편을 쳐다보았다. 상당히 실망한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내 조카가 그 회사 들어간 게 이런 거였어? 개는 자기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입사한 줄 아는데...”

“나... 나는 당신 조카가 잘...”

“내 조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대참사를 만든 회사인데 내 조카가 앞으로 잘 될 거 같아? 우리 아파트 잘못 지어서 무너트린 그 고영E&C 출신이라 하면 누가 또 뽑아줄까? 아무것도 안 도와줘서 차라리 지금 백수였다면 내 조

카 커리어는 최악이 아닐 텐데... 당신이 뇌물 안 받고, 채용청탁 안 하고 업무만 제대로 했어도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나랑 소울이도 살았을 텐데..."

남편이 두 손으로 마른세수를 했다. 그런 그이를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웠다. 정적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저 승사자가 이 조용함을 깼다.

“차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슬슬 저희도 저승에 가봐야 해서요. 염라대왕님은 청렴하고 엄격한 분이셔서 제가 너무 늦으면 밖에서 딴 짓하고 왔다고 오해하세요.”

저승사자의 난처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나를 원망의 눈빛으로 보는 남편과 소울이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푸욱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저승사자를 바라보았다.

“사자님...”

“네.”

“이 모든 사건은 제가 원흉이고, 또 제가 만든 일이니... 불쌍한 우리 가족 살려주시고 죄 많은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저승사자는 웃음기를 싹 뺀 얼굴로 이야기 했다.

“차장님. 지금 저한테 청탁 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명부에도 없는 차장님 영혼을 데려가는 대신에 이 두 분을 살려달라면서요. 이게 청탁 아니면 뭐가요? 이거 대왕님이 알면 경을 처요 경을! 요즘이 옛날 같은 줄 아시나.”

“그... 그게 아니라 제 소중한 가족...”

“또또또 나왔네 그놈의 가족... 차장님!”

저승사자의 호통에 나는 흠칫 놀랐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소중한 가족을 위한답시고 저지른 부패행위들이 결국 가족에게 위해(危害)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가족을 위해서 그러겠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뒤통수가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다.

“그리고 저승에 가야할 영혼을 억지로 이승에 묶어 놓으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차장님 마음 잘 알지만, 지금 가족을 위한답시고 하는 이 행동을 실행에 옮기면 결국 또 가족을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에휴... 시간 없으니 어서 가시죠.”

저승사자의 말에 남편과 소울이는 나로부터 등을 돌려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저승사자도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안 돼! 가지마! 차라리 나도 같이 데려가!”

나의 절규에 세 사람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다시 내게로 돌렸다. 저승사자가 입을 열었다.

“그건 안 되죠.”

“왜요! 왜 안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죽을 때가 아니라고. 당신은 살아서 이 이승의 법도에 따라 받아야 할 벌들이 아직 남았어요.”

“네?”

“당신의 부패행위는 이 두 사람의 목숨만 앗아간 게 아니에요. 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새 시작을 꿈꾸던 무고한 시민들의 수많은 목숨도 앗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의 법에 따른 벌을 다 받아야지요. 꽤 오랜 시간 감옥에 계셔야겠군요.”

저승사자의 말을 듣고 병실에 있는 TV의 뉴스를 보니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현장소장님의 모습과 함께 내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왔다. 화면 아래에는 ‘공직자의 비리가 만든 끔찍한 후진국형 참사’ 라는 자막이 적혀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명이 다 할 때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저승에 와서 다시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으셔야죠. 지금의 당신에게 저승행은 너무나 관대한 처벌이에요.”

“그... 그래도 제발 저도 데려가주세요... 제발 선처를...”

“그러게 누가 부정 청탁하는 사람을 믿으라고 했어요? 청탁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행실인데, 그런 걸 서슴없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처리도 깔끔할 리가 없는데 찻...”

“제... 제발...”

“저 바쁨니다! 당신이 한 짓의 결과 때문에 데려가야 할 영혼이 한 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갑시다. 다음은 한 솔병원이던가?”

멀어져가는 세 사람을 보며 나는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울었다. 그 때 머리맡에 놓인 검은색 카드가 보였다.

“그 때... 그 때 이 카드만 안 받았어도!”

나는 그 카드를 반으로 부숴버렸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온 세상이 새키말게 변하였다. 이 어둠과 내 자아가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았다. 공허한 어둠 속에서 서서히 각종 소음이 들려왔다. 익숙한 클래식 소리. 왈자지껄한 사람들의 목소리. 분명 도시의 소리였다.

“고객님! 어디 안 좋으세요?”

“...예?”

정신차려보니 백화점 출입문이었다. 내 눈앞에는 백화점 도어맨이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서있었다.

“갑자기 멍하니 서서 울고 계셔서...”

“아... 네, 괜찮아요. 잠깐 안 좋은 생각이 나서...”

도어맨의 말에 오른손으로 눈가의 눈물을 훔쳤다. 그 때 내 오른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는 것이 느껴졌다. 손을 펴보니 아무렇게나 구겨버렸던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태블릿을 샀던 그 영수증이다.

“고객님 혹시 불편하시다면 제게 말씀주세요. 제가 도움을...”

“아, 아니에요! 저 잠시 만요!”

걱정하는 도어맨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갔다. 태블릿 매장의 점원은 다시 돌아오는 나를 보고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 고객님? 혹시 제품에 문제라도 있나요?”

“아, 아뇨. 제가 카드를 잘못 써서요. 하하! 죄송하지만 아까 거 취소해주시고 이 카드로 다시 결제해주시겠어요?”

“아~ 네 물론이죠. 잠시 만요. 혹시 아까 영수증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구겨버린 영수증을 점원에게 건넸다. 점원은 영수증에 있는 바코드를 매장 포스기에 찍고는 무언가 열심히 눌렀다.

“아까 잘못 결제하신 카드랑 다시 결제하실 카드 주시겠어요?”

“네, 이게 다시 결제할 카드예요.”

점원이 내가 준 카드 두 장을 가져가서 카드 단말기에 검은색 카드를 먼저 끼워 넣었다.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한 번 울리자 점원은 단말기에서 검은색 카드를 빼고는 아까 같이 건넨 하얀색 카드를 끼워 넣었다. 다시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한 번 울리자 인쇄되는 영수증과 카드 두 장을 돌려주었다.

“예 고객님, 여기 다시 결제된 영수증이랑 카드 두 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가끔 법인카드랑 개인카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런 일 종종 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점원에게 인사를 한 후 발걸음을 돌렸다. 한참을 걸어 출입구에서 아까 그 도어맨과 인사를 주고받고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 연락처 목록을 찾아보고는 전화를 걸었다.

“아, 감사실장님 안녕하세요. 퇴근하셨을 텐데 전화 드려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장 소장님으로부터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데, 그 앞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받고는 자진신고 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내일 출근해서 말씀하신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 멀리서 오는 택시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내 앞에서 멈춰선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소중한 우리 가족이 사는 전셋집으로 가자고 했다.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입가에 흐르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다. 오늘 나는, 가족을 위해 청렴했다. 그리고 그 청렴이 내 가족을 살렸다.



• 주요 등장 인물 소개

- 김영민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말단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믿는 주민센터 공무원
- 박철수 영민의 주민센터 동료
- 노인 공무원을 불신하는 악성민원인
- 할머니 마법의 지우개를 영민에게 건네 준 신비한 할머니

부정부패 지우개 | 김영민

시놉시스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꿈꾸는 주민센터 2년차 공무원 김영민. 그는 오늘도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있다. 처음 이곳에 전입 왔을 때부터 난리였던 그 노인(악성 민원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공무원을 불신한다. 오늘도 노인은 뉴스에 부정부패 사건이 나왔다는 이유로 영민에게 물벼락을 뿌린다.

재수 없던 그날, 퇴근하던 영민은 어떤 나물 파는 할머니를 만난다. 나물을 사드렸더니, 고마우셨는지 할머니는 마법의 지우개를 영민에게 건넨다. 다음날, 영민은 우연하게 지우개의 능력을 확인한다. 종이에 부정부패 사건을 쓰고 마법의 지우개로 지웠더니 그 사건은 애초에 발생조차 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감탄을 금치 못하던 와중 악성 민원인 노인이 다시 센터에 등장한다. 또다시 공무원을 모욕하는 노인에게 화가 난 영민은 노인에게 내기를 제안한다. 한 달간 공무원 비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노인이 다시는 진상 짓 하지 않기로, 사건이 일어난다면 영민이 옷을 벗기로. 노인은 껄껄 웃으며 내기를 승낙했고 각서까지 쓴다.

영민은 29일간 뉴스에 흘러나오는 모든 공무원 비리 사건을 지웠다. 내친 김에 과거의 공무원 비리 사건도 없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공직사회로 청렴하게 인식하도록 말이다. 그렇게 3년간의 부정부패 사건을 지웠더니, 공무원 위상이 끝을 모르고 올라간다. K-공무원이 대세가 되었고, 청소년 인기 직업으로 유튜버를 제치고 공무원이 1위를 차지했으며, 김태희 닮은 의사가 공무원인 영민과 선을 보고 싶어서 난리다. 청렴의 위력이 이 정도인가 싶은 그때, 동료직원에게 의해 마법의 지우개를 잃어버리고 만다.

아직 내기 종료까지 하루가 남았다. 뉴스에서는 부정부패 뉴스가 흘러나온다. 다급해진 영민. 그는 다시 할머니를 찾았다. 마법의 지우개를 다시 달라하는 영민에게 할머니는 깨달음을 준다. “자네는 대한민국이 정말 청렴해졌다고 생각하나?” 부끄러워진 영민이는 찾기로 했다. 마법의 지우개를 쓰지 않고 대한민국을 진짜 청렴하게 만들 방법을. 영민은 방송국을 찾아가 공무원의 높아진 위상을 이용해 대국민 연설을 한다. 그리고 그 방송에 감화된 노인이 내기를 기권하면서 내기는 영민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S#1. 주민센터 안.

대기석 쪽 텔레비전 뉴스에서 세금 5억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소식을 전한다. 의자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눈이 일제히 텔레비전을 향한다. 수군대는 사람들, 한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며 욕까지 해댄다. 공무원인 철수와 영민은 나란히 앉아있고, 컴퓨터로 서류 작성 중 같이 뉴스를 듣는다.

철수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영민 뭐가?

철수 지금 나오는 뉴스 말이야. 공무원이란 양반이 왜 세금을 횡령하냐고.

영민 예휴, 신경 끄는 게 상책이야.

철수 (어이없다는 듯이) 야, 저런 일 하나가 우리 공무원 이미지를 얼마나 깎아먹는데.

영민 알지. 저기 저 앞에 계신 어르신도 공무원 엄청 불신하는 걸.

철수 (어르신을 쳐다보며) 아 저분? 그래. 비리 사건 하나 터질수록 저런 분이 늘어나는 거라고.

영민 맞는 말이야. 근데 말이야.

철수 응?

영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고작 말단 공무원일 뿐인데.

철수 (영민을 쳐다보며)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영민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기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 어르신 불평불만 듣는 것뿐이고, 방법은 높으신 분들께서 찾을 일이지.

철수 어르신?

철수가 앞을 바라보니 화가 잔뜩 난 것처럼 보이는 한 노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노인, 철수 앞에 선다.

노인 어떻게 생각하셔?

철수 네? 저 저요?

노인 네, 너요. 이 양반아. 방금 뉴스 못 봤어? 어떤 쌍놈의 공무원이 말이야.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벌여 낸 세금을 홀라당 먹어버렸다잖어.

철수 아 예. 같은 공무원으로써 정말 죄송합...

노인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까워! 세금이! 우리나라 공무원이란 놈들은 이래서 안 돼. 세금이 무슨 음료수야? 쪽쪽 빨아먹게?

철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 왜 그럴...

영민 (철수에게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참나, 할아버지는 세금 안 내시면서.

철수 싹!

영민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받아먹었어? 왜 우리한테 그러는데?

철수 제발 조용해.

노인 (못 들은 듯) 공무원은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여.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니까네, 무조건 청렴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니들 월급, 누구한테서 나와?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게!

영민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놀면서 법니까? 월급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지.

철수 제발 그만해.

영민 (작은 목소리로) 관찮아 귀 어두워서 안 들려.

노인 다 들린다. 이놈아! 아까부터 딱딱딱 말대답... 무슨 말 하나 지켜봤더니. 뭐? 세금을 안 내?

내가 소싯적에 낸 세금이 얼마인데!

영민 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 일루 나와!

철수 (다급하게 일어선다) 선, 선생님.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희가 번호표 없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무슨 일로... 왔냐고?

철수 예, 말씀만 하세요.

노인 이러려고 왔다 이 세금 도둑들아! (들고 있던 물을 철수와 영민에게 뿌린다.)

철수 (영민과 함께) 으악!

노인 내가 니들 다 민원 처넣을 것이여! 오늘 센터 문 닫을 때까지 나랑 한 번 해 보자고!

철수 (울먹이며) 아이 할아버지!

S#2. 주민센터 앞.

해가 누엣누엣 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 영민이와 철수가 퇴근하기 위해 주민센터 문을 나선다. 철수의 눈에 무거워진 영민의 어깨가 보인다.

철수 어깨 펴 임마. 잘 사과 드렸으니 별 일 없을 거야.

영민 억울해.

철수 뭐가 억울한데?

영민 비리 저지른 건 개들인데, 왜 죄 없는 우리까지 당해야 하는 건데.

철수 그게 국민들의 인식이야. 공무원들은 다 똑같다고.

영민 어우. 비리 저지르는 놈들은 사형. 이런 법 안 만들어지냐? 처벌 무서워서 비리 못 지르도록 말이야.

철수 법으로만 막는다고 될까싶다. 청렴한 마음이 깃들어야 진짜 청렴이지.

영민 어우, 꿈같은 소리 그만해. 부정부패 사건만 안 일어나면 알아서 청렴해지는 거지, 어떻게 사람 마음을 바꾼다는 거야.

철수 방법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청렴해지겠다는 마음 없이는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 같진 않아.

영민 철수야.

철수 응?

영민 내 공직생활 목표가 뭐지 아냐?

철수 뭔데?

영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거.

철수 진짜로? 의원데?

영민 내가 자꾸 네 말 부정하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난 제발 공무원들이 청렴해져서 오늘 같은 물벼락도 안 맞고, 같은 공무원이란 이유로 욕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

철수 오늘 좀 심하긴 했지.

영민 이게 다 비리 저지르는 놈들이랑 부정부패 사건들 때문이라니까? 내가 고위직만 돼 봐.

뿌리까지 뽑아낼 거니까.
철수 킁킁. 알았어. 나 간다. 내일 보자.
영민 오케이 바이바이.

영민, 철수를 헤어지고 집에 가려 몸을 돌리는데 바로 앞에 나물 파는 할머니가 나타난다. 할머니는 영민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다.

영민 이상하다. 아까 계셨나? 처음 보는 분인데... 할머니! 여기 주민센터 끝나면 사람 잘 안다니는 길이에요.

반응이 없는 할머니. 영민은 할머니 눈높이에 맞춰 쭈그러 앉아, 수북이 쌓인 나물을 본다.

영민 예고, 오늘 집 못 들어가시겠네. 여기가 장사하기엔 터가 안 좋아요. 나물 얼마예요?
할머니 한 봉지 4천 원.

영민 진짜 싸다. 잠시만요. (지갑을 뒤적거리다) 4봉지 다 주세요. 나물 참 싱싱해 보이네.
아, 제가 만 원 짜리 밖에 없는데 혹시 천 원짜리 있으세요? 없으면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할머니 잔돈 가져가.

영민 아 있으세요? 안 주셔도 괜찮은데. 자, 여기 2만 원이요.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나물 4봉지를 검은 봉지에 담고 영민에게서 돈을 받는다.

할머니 (2만 원을 쳐다보며) 천 원짜리 없어...

영민 아 그럼 괜찮아요.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니 생각나고 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됐어. 잔돈 가져가.

영민 예? 아까 천 원짜리 없으시다고.

할머니 천 원짜리 없어. 대신.

영민 대신?

할머니 이거 가져가. (지우개를 건넨다)

영민 영? 이게 뭐예요? 지우개? (할머니께 다시 드리며) 아이 괜찮아요. 저 연필 쓸 일 없어요.

할머니 손자 주세요.

할머니 그걸 지우는 게 아니야.

영민 예? 그럼 뭘 지워요?

할머니 네가 지우고 싶은 것.

영민 제가 지우고 싶은 거요?

할머니 그래, 네가 지우고 싶은 것. 지우고 싶은 걸 연필로 적고 그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져.

영민 음... 원래 지우개가 그런 용도 아니에요?

할머니 멍청하긴!

영민 예?

할머니 네가 연필로 쓴 그 일,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진다고.

영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지다뇨. 이게 뭐 마법의 지우개다 이거예요?

무슨 해리포터처럼?

할머니 하리포탄인지 해리포천인지 그 양반이 뭐하는 양반인지는 모르겠고, 좋은 일에 쓰도록 해.

(약 올리듯이) 시골에 계신 우리 손자 같아서 주는 거니까.

영민 그게 무슨 말씀...

나물을 다 판 할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떠나버린다. 그 모습을 영민은 멍하니 바라본다.

영민의 손에는 나물과 지우개가 들려있다.

영민 (지우개를 자세히 보며) 마법의 지우개라고? 영민 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 일루 나와!

철수 (다급하게 일어선다) 선, 선생님.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희가 번호표 없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무슨 일로... 왔냐고?

철수 예, 말씀만 하세요.

노인 이러려고 왔다 이 세금 도둑들아! (들고 있던 물을 철수와 영민에게 뿌린다.)

철수 (영민과 함께) 으악!

노인 내가 니들 다 민원 처넣을 것이여! 오늘 센터 문 닫을 때까지 나랑 한 번 해 보자고!

철수 (울먹이며) 아이 할아버지!

S#3. 주민센터 안.

다음날 아침, 주민센터. 철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고 영민은 이제 막 출근한다.

영민 좋은 아침.

철수 (속삭이며) 영민아. 큰일 났어. 빨리 와 봐.

영민 응? 무슨 일인데?

철수 (손짓하며) 빨리.

영민 뭔데?

철수 (속삭이며) 우리 센터장님이 말이야... 뇌물을 받으셨대.

영민 (큰소리로) 뭐라고? 센터장님이?

철수 (속삭이며) 조용히 말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영민 자세히 말해 봐. 이거 팩트야, 소문이야?

철수 팩트야. 시청 감찰팀에 있는 내 친구한테 연락받았어. 곧 감사 뜰 거라더라.

영민 잠깐만. 센터장님이 감사받는다면 우리도...?

철수 센터 직원 모두를 뒤져보겠지. 같이 돈 받은 거 있나.

영민 어우, 또 비리 공무원 때문에 우리만 피해보네. 대체 누구한테 돈 받은 거야?

철수 이거 내막이 또 골 때리더라고. 들어봐.

철수가 자세히 말해주려던 그때, 한 주민이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온다. 눈치를 보는 영민과 철수. 사정을 모르는 다른 직원들의 눈치도 보인다.

철수 기다려봐. 내가 적어서 알려줄게

영민 그래.

영민,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간다. 종이에 연필로 열심히 휘갈기는 철수. 얼마 안 가 영민에게 그 종이를 획 던진다. 확인하는 영민, 표정이 더욱 심각해진다. 그런데 무언가 영민의 눈에 띈다.

영민 야, 잠깐만 이거 결재서류잖아.

철수 뭐? 정말? 급하게 쓰다 보니. 아아, 그거 연필로 쓴 거야. 너 지우개 있어?

영민 덤벙대긴.

영민이 어제 받은 지우개를 찾아 주머니를 뒤진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영민 앞을 지나간다. 영민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확인한다. 앞에는 센터장이 직원들을 향해 서 있다.

센터장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훌쩍인다) 여러분...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되지 마세요. (문 밖을 나선다)

철수 결국 직위해제 되셨나보네.

영민 비리 공무원의 비참한 말로지.

철수 자식들 이제야 대학 간다는데 어떡하시냐?

영민 누구 걱정하는 거야. 이제 곧 감찰 뜬다며. 준비는 다 됐어?

철수 무슨 준비?

영민 감찰팀이 절대 돈 받은 것만 확인하지 않을 거야. 다른 건수도 있나 샅샅이 뒤져보겠지.

너 영수증 처리해야 할 거 다 해놨어?

철수 아 맞네. 빠진 거 있나 확인해봐야겠다.

영민 그래. 한 번 씩 다 봐봐.

영민, 착잡한 얼굴로 주머니에 있던 지우개를 꺼내 아까 결재서류에 적힌 글씨를 지운다.

영민 (혼잣말로) 제발 부정부패들 좀 없어져 버려라. 악성 민원인한테 욕 안 먹고, 공무원 인식도

좋아지게 또, 감찰 같은 것도 안 당하게!

영민, 글자를 모두 지우고 철수에게 결재서류를 건네준다.

영민 자, 여기.

철수 내 결재서류는 또 언제 가져갔어?

영민 뭘 소리야. 아까 네가 실수로 결재서류에 글자 써서 지워줬잖아.

철수 내가? 내가 바보도 아니고 결재서류에 왜 낙서를 하겠어.
영민 그새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아님 진짜 바보가 되신 건가?

그때, 센터장이 주민센터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온다.

철수 센터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차가 좀 많이 막혔죠?
센터장 아니 뭐 차가 이리 밀려? 피난길인 줄 알았더니까.
철수 하하! 금요일 아침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겨우 왔습니다.
센터장 그래, 별 일은 없었고?
철수 냐, 이상 무입니다!
센터장 좋아, 오늘도 다들 잘 해보자고. (자리로 돌아간다)

철수 화이팅입니다!
영민 (병 찢 채, 속삭이며) 이게 무슨 일이야?
철수 뭐가?
영민 (속삭이며) 센터장님 말이야. 뇌물 받으셔서 좀 전에 직위해제 되셨잖아.
철수 (큰소리로) 무슨 소리아? 언제?!
영민 (속삭이며) 쏠! 조용히 말해.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철수 (속삭이며) 아 미안미안. 그래서 그게 뭘 말이야. 센터장님께서 뇌물을 받으셨다니?
이거 소문이야 팩트야? 나 감찰팀에 아는 사람 있는데 한 번 물어볼까?

영민, 철수를 어이없다는 얼굴로 지긋이 바라본다. 거짓말처럼은 안 보이는 순진무구한 철수의 표정.

영민 어... 소문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야.
철수 그럼?
영민 꿈꿨나보다. 미안.
철수 너 이러기야? 빨리 알려줘.
영민 이따 얘기해.

영민,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을 한 철수를 뒤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간다.

영민 (지우개를 쥐고 바라보며) 혹시... 정말로?

영민, 포털 사이트에 횡령을 검색한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공무원 횡령 사건이 나온다.

영민 (연필로 적으며) 2023년 5월 30일 한 관세청 공무원이 국세 5억을 횡령했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영민, 다 적고 비장한 얼굴로 지우개를 한번 주시하더니 아까 쓴 글을 지운다. 다 지우고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본다. 화면엔 '알 수 없는 페이지'라는 문구가 떠 있다.

영민 알 수 없는 페이지... 말도 안 돼.

영민, 다시 횡령을 검색한다. 좀 전까지 도배되었던 5억 횡령 기사가 강그리 사라져있다. 열심히 스크롤을 내리는 영민.

영민 없어... 없다고. 기사가 모두 사라졌어. 이게 진짜... 진짜 마법의 지우개란 말이야?

그때, 저번에 진상을 부리던 노인이 다시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온다. 노인, 철수에게 다가간다.

노인 안녕들 하신가? 비리 공무원 분들.

철수 (속삭이며) 이런, 또 오셨네.

영민은 지우개만 보고 있고 노인은 철수 앞에 선다. 철수, 잔뜩 긴장한 채 노인을 못 본 척 한다.

노인 (철수를 보며) 안녕?

철수 (공손하게) 아, 오셨어요? 오늘은 어떤 일로 방문하셨어요?

노인 내가 뭐 일이 있어야 오나? 여기 와서 에어컨 바람도 쐬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쓰고. 또!

철수 또?

노인 니들 감시하러 오는 거지. 니들이 내 세금 빙땅치나 안 치나.

철수 (비굴하게) 그러셨구나. 맘껏 이용하시고 감시하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노인 (큰소리로) 도움!

철수 (놀라며) 깜짝아. 도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요?

노인 그래, 도움이 필요하다고.

철수 어떤 거요?

노인 잘 들어 봐. 내가 말이야. 이 지역 높으신 양반들하고 많이 친하걸랑. 어제도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었어. 근데 요 녀석들이 말하길, 요 주민센터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대?

철수 냄새? 무슨 냄새요?

노인 나 참.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비리 냄새 말이야 비리!

철수 네? 비리요?

영민 (비리 이야기에 그제야 노인을 바라본다)

노인 그래, 다 알고 왔으니까. 순순히 말해 봐. 니들. 뭐 돈 받은 거 있어?

철수 선생님 큰일 날 소리 하신다. 저희가 무슨 돈을 받아요. 저희 그런 거 안 해요.

영민 (표정이 점점 굳는다)

노인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아? 전수조사 해봤어? 여기 직원들 주머니 싹 다 뒤져봤냐고. 똑똑히 들어.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것들은 말이야. 전~부 예비 범죄자들이야. 언제 돈 받고, 언제 비리 저지를지 모른다 이 말이야!

영민 (기가 찬단 듯이) 해!

노인 (영민을 썰렁하며) 뭐여? 방금 웃었어?

영민 예, 웃었습니다. 역시 귀가 밝으시네요.

철수 (속삭이며) 아! 너 왜 그래?

노인 하, 요거요거 저번에도 그러더만 국민 알기를 뭐로 아나봐? 왜? 불만이며? 노친네가 귀 밝은 게?

영민 아뇨, 귀 밝으신 건 축하드리고요. 근데 아까 저희에게 뭐라고 하셨죠? 예비 범죄자들?

노인 그래! 예비 범죄자들이라고 했다! 티비만 들었다하면 나오는 게 니들 부정부패 사건들이야. 들킨 것만 해도 그 정돈데, 실재론 얼마나 많을까 응? 여기 니들도 마찬가지야.

다 돈 받고! 비리 저지르고! 우리나라 공무원은 다 그래!

영민 아~ 다 그런다고요?

노인 그렇다니깐!

영민 그럼 선생님 저랑 내기 하나 하실래요?

노인 뭐? 내기?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영민 아뇨. 전 진지합니다. 제 직업이라도 걸까요?

노인 뭐? 직업을 걸어? 해! 그까짓 말단 공무원직이 뭐라고. 그래, 말해봐. 내용이 뭔데?

영민 오늘부터 한 달간 뉴스에 공무원 부정부패 사건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전 공무원을 그만두겠습니다.

철수 야, 너 왜 이래. 미쳤어?

노인 그래, 네 친구 미친 것 같다

영민 대신! 부정부패 사건이 한 달간 나오지 않는다면 방금 한 말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대신 여기서 진상 짓 하지 마시고요.

철수 (영민을 붙잡으며)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더위를 먹었나 봐요.

노인 놔 뒤! 너, 분명 장난이 아니렸다?

영민 예. 각서도 쓰시죠.

노인 허구한 날 나오는 게 공무원 부정부패 뉴스야. 후회하지 않겠어?

영민 선생님은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노인 크헛! 아주 패기 넘치는 바보로구만. 좋아. 내기를 받겠어. (철수를 가리키며) 너 봤지? 이 내기의 증인인거야.

철수 아니... 그게... 예...

노인 종이 갖고 왜!

영민, 노인의 말을 듣자마자 A4용지 한 장을 들고 당당하게 노인 앞으로 걸어간다. 노인 앞 선반에 종이를 광하며 내리친다. 노인, 분노하며 각서를 작성한다. 서명과 지장을 찍는데 분노의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본다.

노인 한 달 뒤에 다시 오겠어. 두고 보자고!

영민 (노인이 떠나자 자리에 돌아간다. 연필과 종이, 그리고 마법의 지우개를 자리에 세팅한다.)

철수 너 대체 왜 그랬어. 더러워서 공무원 때려치우기로 한 거야?

영민 철수야, 우리가 예비 범죄자들이냐?

철수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근데 넌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얘기했잖아. 그게 어디 우리만 잘해서

되는 거냐고.

영민 걱정 마. 내가 만들 거야. 부정부패 사건 하나 없는, 청렴 대한민국. 청렴 공직사회로.

내가 만들 거라고.

철수 아니 애가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네. 그걸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영민 (지우개를 높이 들며) 이 마법의 지우개로.

철수 너...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안타깝게 영민을 바라본다, 한참을 보다가 센터장에게 간다)

센터장님, 영민이가 이상합니다.

센터장 (영민을 한 번 쓱 보더니)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 걸리는 정신병이야. 놔두면 괜찮아진다네.

철수 그러겠조...?

영민 (혼잣말로) 두고 봐. 내가 과거 부정부패 사건까지 지워서, 비리 공무원이란 말이 쏙 들어가게

할 테니까.

영민, 열심히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지운다. 째깍째깍 초침이 흐르는 소리가 빠르게 들린다. 동시에 옆 텔레비전에 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뉴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최초로, 공무원 부정부패 사건 무발생

한 달 째 되는 날입니다. 여타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굉장히 놀라운 기록인데요.

영민, 계속해서 컴퓨터로 부정부패 사건을 검색하고, 지우개로 지운다. 반복하고 반복한다. 동시에 옆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뉴스 벌써 3개월째!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마법같이 사라졌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보기 좋게 빗겨가고 대한민국이 곧 청렴,

청렴이 곧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철수 뭘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영민 아우, 손 아파. 지금 몇 시야?

철수 2시. 어르신이랑 각서 쓴 이후로 5시간이나 그러고 있었어. 대체 뭐하는 거야. 아까부터 썼다

지웠다.

영민 철수야.

철수 응?

영민 대한민국 공무원이 비리 공무원이냐?

철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지금 부정부패 사건 무발생 3개월 차라는 전설의 기록을

갱신중이라고.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청렴해.

영민 (씩 웃으며) 그렇지? 그게 다 이 형님 덕분이다 이거야.

철수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영민 뭘 소리야. 난 대한민국을 더욱더 청렴하게 만들러 갈 테니까. 방해하지 마라.

철수 (안쓰럽게 쳐다보며) 그래, 화이팅해라. 아, 영민아.

영민 응?

철수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뭐든 도와줄게.

영민 (곰곰이 생각하다가 서류 뭉치를 건넌다) 그럼, 이것 좀 해줘라. 바빠서. 땡큐.

철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며) 아니, 이런 거 말고...

(한 마디 하려다가 결국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간다)

영민, 더욱 비장한 표정으로 다시 아까처럼 쓰고 지우길 반복한다. 동시에 옆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시간만 빠르게 흘러, 이번엔 밤낮 또한 계속해서 바뀐다.

뉴스 공무원 비리 사건이 사라진지 1년.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란 단어는 이제 옛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에서 유래 없는 청렴한 정부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뉴스 (장면전환) K팝? k드라마? 아니죠. 요즘 전 세계에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는 건

k-공무원입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뉴스 (장면전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가 어떤 직업인지 아시는지요?

얼마 전까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이 장래희망 순위 1위로...

뉴스 (장면전환)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공무원 비리가 3년 째 사라진 지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열띤 표정으로 구호를 제창하고 있는데요. 청렴한 공무원의 월급을 2배 이상

올려달라는 요구를...

철수 영민아, 너 어르신이랑 내기 한 이후로 벌써 29일째 이려고 있어. 어디 글쓰기 공모전

나가니? 무슨 글을 쓰길래 한 달 내내 썼다 지웠다 하는 거야. 이거, 지우개 다 닳은 것 봐.

영민 철수야. 나 팔 좀 마사지해줘. 전완근이 부셔질 것 같아.

철수 (주물러주며) 눈 봐라 눈. 다크서클이 턱 끝까지 내려왔어.

영민 아~ 시원하다. 대한민국 부정부패 지우느라 열중했더니 잠을 통 못 잤더니...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철수 바람을 쐬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지 않을까?

영민 응? 무슨 병원?

철수 (지곳이 바라보다가) 됐다. 다녀와.

영민 뭐지? 이 반응은? 암튼 쉬고 올게.

영민, 문 밖에 나서서 기지개를 핀다. 그때, 영민의 핸드폰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영민 어. 엄마.

엄마 영민아, 너 선볼래?

영민 응? 갑자기?

엄마 저번 주부터 공무원 아들 소개 좀 시켜달라고 여기저기서 난리야. 너 옆집 한결이네

엄마 알지? 그 분 친언니의 딸이 의산데, 너 좀 소개시켜 달라고 난리래. 그 분이 사진도

보내줬거든? 아주 그냥 김태희 뺨을 쳐. 어때? 나갈 거지?

영민 김태희 뺨치는 외모의 의사가 날 왜...?

엄마 으이그, 요즘 결혼 1순위가 공무원인거 몰라? 내 아들 데려가려면 의사정돈 돼야지.

영민 일단 알았어. 끊어봐.

엄마 그래, 그럼 한다고 한다? 끊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영민 아니 그건 아니고...

똑 전화가 끊긴다. 영민, 멍 때리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따르릉하고 울린다.

영민 여보세요?

혜진 어... 나야.

영민 누구시죠?

혜진 내 번호 지웠나보구나. 나 혜진이.

영민 혜진이? 네가 왜?

혜진 이제 와서 미안한데,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영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차놓고.

혜진 그땐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이젠 반대 안 해. 오히려 다시 너 잡으라고

난리시더라.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부탁이야. 우리 좋았었잖아.

영민 잠, 잠깐만. 이따가 다시 전화하자. 머리 아프다.

혜진 아, 미안. 너무 갑작스러웠지? 내가 다시 전화할게.

영민 그래.

영민, 전화를 끊고 들어와, 자리에 다시 앉는다.

영민 이 정도로 공무원 위상이 높아질 줄이야. 어? 뭐야. 내 지우개 어디 갔어? (열심히 뒤져본다)

철수 형님이 지우개 하나 사줬다. 다이소에서 제일 비싼 거 샀으니까 그걸로 열심히 지워 봐.

영민 뭐? 원래 있던 거는?!

철수 그 짜리몽땅한 거? 버렸지.

영민 그걸 누구 맘대로 버려!

철수 깜짝아. 야! 그 집기도 힘든 지우개 버린 게 어때서. 지우개가 무슨 할머니 유품이라도 돼?

영민 됐고, 어디에 버렸어?

철수 쓰레기통에. 새 거 사줘도 난리야.

영민, 황급히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본다. 안은 깨끗이 비워져있다.

철수 아까 청소 아주머니가 비우시더라. 대체 그 지우개가 뭔데?

영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간다. 분리수거장을 확인했지만 아무 것도 없다.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차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영민 안 돼... 안 돼... 내기까지 아직 하루가 남았단 말이야!

저 멀리 전광판에서 공무원 비리뉴스가 흘러나온다.

영민 할머니, 할머니를 찾아야 돼. 할머니! 할머니!

이리저리 할머니를 찾아다니는 영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분명 방금 전까지 아무도 없던 곳에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 나물사려고?

영민 아악! 언제부터 계셨어요?

할머니 난 계속 여기 있었던다.

영민 네? 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나물 다 주세요. 여기 5만 원. 잔돈도 다 가지시고요.

(5만원 지폐 한 장을 건넨다) 그리고 그 마법의 지우개도 주세요.

할머니 지우개? 아직도 지워야 할 게 남았느냐?

영민 예. 아직 한참 남았어요. 어서 주세요. 빨리요.

할머니 뭘 지우기에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건가?

영민 부정부패요! 제가 우리나라 공무원 부정부패를 모조리 지워버렸어요. 대한민국을 청렴한 국가로 만들었다고요.

할머니 (고개를 가우뚱하며) 글썄, 정말 청렴해진 게 맞나?

영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멀리 전광판에서 공무원의 12억 횡령 비리 뉴스가 다시 흘러나온다. 영민, 눈동자가 흔들린다.

할머니 자네가 원하는 청렴이 저런 건가?

영민 그래도 사건은 없어졌어요.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서 지우개를 주세요!

할머니 (영민을 물끄러미 보며) 하나 물어보겠네. 자네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 안 나길 원하는 건가, 공무원에게 부정한 마음이 생기지 않길 원하는 건가?

영민 그건...

할머니 사건뿐이야. 그 지우개가 지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악한 마음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네.

자네는 대한민국을 청렴하게 만들지 않았어. 청렴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을 뿐이지.

할머니 평생 누군가의 비리를 지우개로 지우며 살고 싶은가? 그걸 원하나? 그렇다면 자, 여기

마법의 지우개네. (영민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지우개를 내민다)

영민 (지우개를 아련하게 쳐다본다) 물론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알맹이 없는 가짜 청렴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 지우개가 없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정을 저지르려는 마음은 대체 어떻게 지울 수 있는 거죠?

할머니 (나물을 정리하며) 묻지 말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 그 진지한 고민이 내가 받은 진짜

잔돈 값이니까. 지우개는 뭐랄까... 나물 팔아주면 주는 그냥 사은품이야.

영민 진지한 고민이라... 근데, 할머니는 대체 누구십니까?

할머니 (씩 웃으며) 글썄, 해리포터이라고 해 두지.

영민 해리포터요.

할머니 그래, 해리포터. 그나저나 안 늦었나? 내기는 내일까지야.

영민 전 졌어요. 이미 비리 사건이 터져버렸는걸요.

할머니 멍청하긴!

영민 예?

할머니 자네한테는 이미 지우개가 있지 않은가. 인간의 악한 마음을 지우는 강력한 지우개가.

영민 저한테요?

할머니 그래. 사람은 누구나 지우개를 갖고 있어. 단지, 그 사실을 모르고 가만있는 자와 그 사실을 알고 악한 마음을 지우려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있을 뿐인 거야.

영민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에게도 지우개가 있나요?

할머니 고작 잔돈 4천 원에 영업비밀까지 달라하는구먼. 좋아. 마지막 힌트를 주지. 사람의 마음은

말이야. 사람으로 지우는 거야. 자네가 가진 그 지우개로 비리 공무원의 부정한 마음을

지워보게.

영민 사람으로 지운다라... 어려운데... (비리뉴스가 나오는 전광판을 보더니 깨달은 표정) 아!

할머니 (싱긋 웃으며) 알았으면 얼른 가게. 가서 지우고 와.

영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영민이 방송국을 향해 달린다. 방송국 입구에 도착해 공무원증을 보여주니 가볍게 통과한다. 이윽고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에 도착한 영민.

스태프 누구십니까?

영민 아...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스태프 그러시군요. 어떤 일로 오셨죠?

영민 제가... 제가 전국의 공무원과 국민들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생방송을 하게 해주십시오.

스태프 네?

영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스태프 아니, 아무리 공무원이셔도 갑자기 찾아오셔서 생방송을 하시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영민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스태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멀리서 누군가 다가온다. 방송국 본부장이다.

본부장 무슨 일이지?

스태프 아니 글썽 이 분이 공무원이신데, 갑자기 생방송에 출연시켜 달라고 떼를 쓰시네요.

돌려보내겠습니다.

영민 (본부장을 애절하게 바라보며) 부탁드립니다. 들여보내 주세요!

본부장 (영민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고는) 흠... 들여보내 줘.

스태프 네? 본부장님! 이 분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방송사고 나면 저희 다 끝장입니다!

본부장 공무원이시잖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청렴하신 분들. 이 분들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준비해서 생방송으로 내보내.

영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뉴스 데스크 자리에 앉는다. 긴장한 듯,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자세를 잡으니, 앞에 영민을 잡고 있는 카메라에 불이 들어온다.

영민 안녕하세요. 국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서울 행복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영민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3년 간, 단 한 건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늘 그렇듯 마법은 풀리고 꿈은 언젠가 깨어납니다.

영민 여러분은 그 꿈이 어땠나요. 달콤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영민 전 놀라웠습니다.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을 했다고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위상은 하늘을 찌렀으니까요.

영민 어머니께서 저보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은 저를 보고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말단이고 별 볼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청렴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저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달콤했지요. 하지만...

영민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은 3년이라는 시간이... 만약 우연이라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만약... 공무원의 청렴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청렴이 아니라 정말 공교롭게도 우연하게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어찌시겠습니까?

공무원 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청렴하신가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은 청렴하신가요?

여러분은... 청렴한 마음을 갖기 위해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민 오늘 공무원 비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달콤한 마법이든, 놀라운 우연이든 간에 대한민국에 잠시 씩워진 청렴이란 공각지가 이제 벗겨졌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청렴 신화는 과연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영민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청렴이 가져다 줄 행복한 미래, 국민들께 존중받는 아름다운 공직사회를요.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나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나와 상관없는 없는 일이라고, 난 억울한 일이라고. 하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국민께서는 한 명, 한 명. 여러분을 포함한 100만의 공무원 개개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얼굴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영민 전 전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청렴해지는 방법일요.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신뢰할 방법일요.

영민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주민센터 안. 노인이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온다. 영민은 포기한 듯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노인이 영민 앞에 선다.

노인 짐은 다 싸셨나?

영민 네. 인사도 다 드렸습니다.
노인 그래. 이쪽으로 나오시게.

영민, 자리에서 나와 노인 앞으로 다가간다. 노인, 각서를 영민에게 보여주더니 찢어 버린다.

영민 서, 선생님?

노인 방송 봤네. 인상적이더군.

영민 그래도... 제가 졌잖습니까.

노인 꺾꺾꺾. 이봐. 자네가 지긴 왜 졌어?

영민 예?

노인 물론, 각서 내용으로서는 자네가 졌지만 말이야... (싱긋 웃으며) 내 마음을 돌렸지 않은가.

영민 (말을 하지 못한다)

노인 한 달간 부정부패 사건이 뉴스에 뜨지 않았더라도 난 대한민국 공무원을 믿지 않았을 거야.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비리를 저지를 놈들이라 믿었으니까 말이야. 실제로도 그랬고.

하지만, 자네가 나온 방송으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네.

영민 어떤?

노인 그래도 바뀔 생각과 의지는 있구나... 라는 걸 말이야. 그래서 난 자네를 믿어보기로 했네.

영민 선생님...

노인 승부에서는,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야. 룰로서 상대방을 이기거나, 아니면,

(뜸을 들이더니 웃는다) 상대방이 기권하거나. 이 승부는 내가 기권하겠네. 자네가 이겼어.

부디 좋은 공무원이 되길 바라겠네.

영민 (울컥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보지 못할 것처럼 떠난 할아버지는 불과 바로 다음날 센터를 찾아왔다. 다만, 진상으로서가 아닌 공무원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진 공무원 도우미로.

노인 할멈! 몇 번을 말혀! 절차가 있다고 절차가! 공무원이 전문간데 전문가 말을 믿어야지

막무가내로 요구한다고 이 분들이 그걸 해 줘? 공무가 무슨 장난인 줄 알아?

노인 번호표는? 봐봐. 내 이럴 줄 알았어. 기본이야 기본! 번호표부터 뽑고 순서 기다리면 공무원

분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당장 뒤로 돌아가서 번호표부터 뽑아. 이 아지매야!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노인이 영민에게 캔커피를 건넨다.

영민 아이고 할아버지,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노인 내가 미안해서 그래 미안해서. 진상 놈들 상대해 보니까, 내가 했던 짓도 생각나고...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주는 걸세.

영민 네? 어떤 게요?

노인 국가에 헌신해줘서. 또 국민에게 봉사해줘서. 그리고 청렴하게 일 해줘서 말이야.

영민 (씩 웃는다) 제 의무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노인 영? 나한테는 왜 고마운가?

영민 신뢰해주셔서요. (허리 숙여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청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노인 (영민을 보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독백 마법의 지우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부정부패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난 할아버지의 불신을 지워내는데 성공했다. 청렴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이

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티끌 하나 없는 공직사회는 마법 같은 환상에 불과하다.

어쩌면 진정한 청렴은, 표면으로 들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의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난 적어도, 그런 세상을 꿈꾸고 싶다. 진실된 청렴한 마음으로 꽃 피워진 아름다운

공직사회를 말이다. 끝.



푸른 숲 | 김경환

어느 옛날 마을에 이장이 있었어요.

이장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데 열중이었죠.

사람들은 이장을 싫어했으며, 모두가 이장이 없어지기만을 바랐답니다.

뜨거운 여름날, 마을에는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나그네는 많이 지쳐 보였으며, 음식과 물을 얻으러 집마다 돌아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의 모습이 불쌍하여 조금 조금씩 음식과 물을 주었고, 그러다 보니 나그네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음식과 물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 한편에 있는 나무에 앉아 음식과 물을 마시는 나그네에게 이장이 다가왔어요.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저는 저 멀리 푸른 숲이 있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푸른 숲이라는 말에 이장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푸른 숲에서 나오는 나무는 마을에서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푸른 숲의 나무를 파는 상인이 아닌 이상 푸른 숲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어요, 또한 상인들도 푸른 숲의 위치를 절대 말해주지 않았기에 아무도 푸른 숲이 어디 있는지 몰랐답니다.

“아니?! 푸른 숲에서 왔는가?”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푸른 숲에서 온 것을 확인한 이장은 나그네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 자네 배가 고프지 않은가?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맛있는 음식과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네.”

“아닙니다, 충분히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받았으니, 호의는 감사하지만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의 거절에 이장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의 환심을 사서 푸른 숲의 위치를 알아내어 자신이 직접 거기 나무를 팔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잠은 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집으로 오면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네”

이장의 제안을 나그네는 또다시 거절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 그리고 날씨가 춥지 않아 나무 밑에 자리를 잡아 자고 가도 됩니다, 제가 내일 일찍 마을로 돌아가야 해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나그네의 완곡한 거절에 부자는 낙담하였지만, 마을로 돌아간다는 말에 다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그네를 따라가면 푸른 숲으로 갈 수 있겠지? 내일 아침 일찍 나그네를 따라가야겠군’

이장은 자기 마음을 감추고 나그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여보! 내가 방금 푸른 숲에서 온 나그네를 만났는데 내일 마을로 돌아간다고 하는구먼!”

“어머! 정말 푸른 숲에서 온 나그네가 맞나요?”

“그렇다니깐! 내가 내일 몰래 나그네를 따라가서 푸른 숲의 위치를 알아내 거기 있는 나무를 모두 팔아버리겠어! 그럼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이장은 내일 푸른 숲으로 가기 위해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어요.

“일단, 마을이 멀 수도 있으니 챙겨야 할 게 많을 것 같군!”

먼저 이장은 나그네를 따라다니며 음식과 물, 잠자리를 구할 보석과 자기가 마을의 이장이라는 명패, 그리고 이것저것 짐을 챙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이 밝자 이장은 나그네가 머물던 나무로 갔어요. 때마침 일어난 듯한 나그네는 자리를 정리하고는 짐을 챙겨 길을 나서기 시작했죠.

이장은 나그네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이 곧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날은 더웠고 나그네의 발걸음은 빨랐죠, 더군다나 무거운 보석을 지고 있는 탓에 이장은 나그네를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장은 자기 등의 보따리에서 그나마 값이 싼 보석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땅에 떨어지는 보석들이 너무나 아까웠지만 푸른 숲의 나무를 팔면 이런 보석들이야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장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작은 보석들을 버렸어요.

“아름다운 보석들아!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주워서 갈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다오”

혼자 눈물을 흘리고 보석을 버리며 나그네를 따라갔어요.

작은 보석들을 하나 둘씩 버리다 보니 어느새 보따리가 가벼워지고 큰 보석 몇 개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그네를 조용히 따라가다보니 금세 날이 어두워졌어요.

나그네는 가는 길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다시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잘준비를 하였어요.

이장은 자신도 근처에서 잠을 자려다 도저히 이런 곳에서는 잠을 못잘 것 같아 마을에 있는 제일 큰집의 대문을 두드렸어요.

“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이장의 부름에 큰집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에헴, 나는 옆 마을 이장입니다, 잠시 어디를 가던 중 날이 어두워져 여기서 하루 묵으려 하니 방을 내어 주시오!”

이장의 태도에 집주인은 기분이 나빴어요, 더군다나 이장의 모습은 험한 산길을 걸어온 탓에 거지꼴이 되어 있었죠.

“당신이 이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돼죠?!”

집주인의 말에 이장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이 가진 명패를 꺼내들었어요.

“이 명패를 보면 내가 이장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이장의 명패를 본 집주인은 되려 코웃음을 쳤어요.

“흠, 당신 행색을 보시오, 온통 땀범벅에 낡아진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명패가 진짜지 가짜지 어떻게 알아요?”

집주인의 말에 화가 난 이장은 큰소리를 쳤어요.

“아니! 이것보시오 난 이렇게 보석도 있고 정말 이장이란 말이요!”

이장이 꺼내든 보석을 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던 집주인은 이내 다시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당신이 이 보석을 훔쳤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안되겠네, 당신을 관아에 신고하겠어요.”

점점 자신을 이장이 아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집주인을 보며 이장은 더 이상 소란을 피웠다가는 나그네에게 자신이 뒤쫓는 사실을 걸릴 것 같아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 됐소,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여기서 나가겠소.”

그렇게 자리를 벗어나려는 이장을 집주인이 붙잡았어요.

“당신이 도둑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내줄 수는 없죠, 관아에 신고해 당신을 잡아 넘길거예요.”

관아에 신고한다는 말에 이장은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난 정말 도둑이 아니요! 이장이란 말이요!”

하지만 집주인은 믿어주지 않았죠, 그러고는 이장에게 말했어요.

“그래, 당신이 이장이든 뭐든 난 당신이 도둑같은데, 만약 그 보석을 준다면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보내드리겠어요.”

이장은 화가 났지만 소란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보석을 주고는 나그네가 자고 있는 나무 근처로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보석도 잃고 쓸모없어진 명패를 보며 이장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푸른 숲에만 간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었기에 이장은 눈물을 닦고 나그네쪽을 쳐다보며 밤을 보냈답니다.

날이 밝자 나그네는 다시 길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날씨는 더웠고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게 없어진 이장은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에 몸이 지칠대로 지쳤어요.

“헉헉...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구만.”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이장은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나그네를 따라갈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장은 자리에 주저앉아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였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갑자기 뒤를 돌아 이장에게로 다가왔어요. 이장은 나그네가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풀숲에 몸을 숨겼죠.

“이장님! 이장님 어디계십니까?”

어느덧 자신이 숨은 풀숲 근처까지 온 나그네의 외침에 이장은 화들짝 놀랐어요.

자신이 뒤쫓고 있다는 사실이 걸려버린걸까? 어떻게 자신이 여기 있는지 안거지?

이장은 혼자 많은 생각을 하며 숨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하여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얻어 마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흠.. 분명 이 근처에서 이장님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장을 찾지 못한 나그네가 가던 길을 가려할 때 이장이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 여기 있소!”

이장의 외침에 나그네는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거친 산길을 지나온 탓에 거지꼴을 하며 온 몸은 땀범벅이 된 모습 이 보였죠.

“이장님! 여기서 또 뵙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지금 내가 정말 배가 고프데 먹을 것과 물을 좀 나눠줄 수 있으시오?”

나그네의 인사도 받아주지 못한채 이장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달래기 위한 음식을 구걸하였어요.

그런 모습에 나그네는 웃으며 음식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당연히 드릴 수 있죠, 어딜 가시길래 이렇게 고생을 하시며 가십니까?”

나그네의 물음에 이장은 차마 나그네를 따라간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 멀리 사는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던데, 길이 너무 험해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자네 덕분에 살았네”

나그네가 준 음식을 먹고 몸을 회복한 이장은 나그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하하, 아닙니다. 저도 이장님네 마을 분들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 걸요, 제가 이장님을 도와드리는건 당연한 거죠!”

나그네의 말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자신은 나그네를 따라 푸른 숲의 위치를 알아내어 부자가 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아닌 마을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선행을 배

푸른 모습에 이장은 감동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닐세,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지 내가 도와준게 아니지 않은가, 나중에 우리 마을을 다시 찾아온다면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주며 대접하겠네”

“아닙니다, 적당한 물과 음식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나저나 이장님께서서는 목적지까지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음... 그게 조금만 더 가면 된다네, 난 여기 좀 더 쉬다가 갈테니 자네는 먼저 가게나,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겠네”

“알겠습니다. 산속은 위험하니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뵙겠습니다”

나그네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가던 길을 갔어요, 그런 나그네의 모습을 보며 이장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그네를 따라간다면 언제쯤 푸른 숲에 도착할 지도 모르는 것이며, 더 이상 따라갈 힘도 얼마 남지 않은 듯 했기 때문이었죠.

나그네의 모습이 안보일 때까지 고민을 하던 이장은 다시 자리를 일어나 나그네가 가던 길을 따라갔어요. 여전히 자신이 한 고생의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장은 몇날며칠을 나그네를 따라갔어요. 계속해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지만 그때마다 지나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얻어먹으며 버티며 나그네를 따라갔어요. 이미 날씨가 얼마나 흘렀는지도 까마득해질 무렵 어느새 나그네는 한 마을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걸음을 멈춘 나그네의 뒤로 높고 튼튼한 푸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었죠. 이때까지 이장이 살면서 본 숲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으며 누가봐도 푸른 숲의 모습이었다.

이장은 드디어 푸른 숲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푸른 숲을 바라보던 이장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진 것들을 버려가며 푸른 숲에 왔지만 이런 초라한 모습에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푸른 숲의 모습에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나는 어찌 나무 한 그루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흔잣말을 중얼거리던 이장은 걸음을 멈춘채 푸른 숲을 보고 있는 나그네에게 다가갔어요

“이보게, 나를 기억하겠는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장의 모습에 나그네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이장님이 여기 어쩐일이십니까?”

놀란 모습으로 물어보는 나그네에게 이장은 말했어요.

“사실 난 자네가 푸른 숲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푸른 숲의 위치를 알기 위해 자네를 몰래 따라왔드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숲의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이장은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나그네에게 말했어요

“나는 항상 마을사람들을 괴롭히며 재산과 명예를 지켜왔었네, 근데 자네를 따라와 이렇게 푸른 숲을 보니 내가 가진 재산과 명예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느꼈드네,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될 내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지냈으니 그 죄책감이 말할 수 없이 크구만”

이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난 다시 마을로 돌아갈 생각이네, 물론 푸른 숲의 위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네. 그리고 자네가 배풀어준 친절에 정말 감사하고, 그 친절을 이용한 나를 부디 용서해 주길 바라네”

그렇게 나그네에게 말을 건내며 돌아서는 이장에게 나그네는 말했어요

“이장님, 저는 사실 이장님이 저를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디다. 그리고 이장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마을 사람들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디다. 긴 시간동안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모습이 마을에 계실 때 보다 더 초라했지만 많은 것을 버려가며 저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며 이장님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디다. 그래서 일부로 모른척하며 마을로 왔습디다.”

그런 나그네의 말을 들은 이장은 확실히 자신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많은 보석도 이장이라는 명패도 없어졌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옷도 낡아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었죠.

“그렇구먼, 자네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네, 이 힘든 여정을 이겨내는데 돈도 명예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내가 가는 길에 방해만 되었지, 그리고 이런 행색에도 나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며 친절을 베풀었던 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힘든 길을 극복할 수 있었다네”

이장의 말에 나그네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쩌면 이장님께서서는 푸른 숲에서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어가시는 것 같군요”

그런 나그네의 말에 이장은 똑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것 같구먼, 난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겠네, 자네 덕분에 소중한 것을 얻어갈 수 있어 정말 고맙네”

그렇게 이장은 나그네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로 향했다, 또 다시 힘든 여정을 떠나는 이장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또 다시 몇날며칠이 지나 이장은 마침내 마을에 도착하였어요.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것도 있지만 행색이 거지꼴이 되버린 이장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장은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가족들은 모아둔 돈을 다 쓰고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이장의 목소리를 들은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이장을 바라봤어요. 온갖 고생을 한 이장을 모습을 보자마자 부인은 울면서 이장을 끌어안았습디다.

“아이고,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돌아 와서 너무 고마워요”

자신의 품에 안겨 우는 부인을 달래주며 이장은 자신이 푸른 숲을 가는 동안 있었던 이야기, 푸른 숲을 보며 나그네와 했던 이야기, 다시 돌아오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장은 말했죠.

“여보, 이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며 지내겠소, 더 이상 돈과 명예만을 위해 살지 않겠소”

이장의 말에 부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저도 당신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이장부부는 다음 날부터 자신들이 괴롭혔던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며 봉사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마을은 이장부부와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숲도 더 웅장해지고 사람들의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이런 마을에서 나오는 나무나 광석들은 다른 마을에서 아주 품질이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있었어요.

마을에 또 다시 마을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나그네는 집마다 음식과 물을 얻으며 돌아 다녔어요. 그러다 문득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일하는 이장부부의 모습을 보았죠.

나그네는 그 모습을 보며 웃으며 혼자서 말했어요.

“하하. 이젠 여기가 푸른 숲이군요. 이장님”



단풍이의 청렴 대모험

| 나현주

푸릇푸릇한 잎을 가진 단풍나무 부자(父子)는 풍풍마을에 꿀벌들과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말벌들이 아빠 단풍나무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아빠 단풍나무에게 많은 양의 달콤한 물을 가져다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사는 꿀벌들보다 달콤한 물을 더 많이 줄게. 그러니 꿀벌들 말고 우리랑 일하자!”
라며 아빠 단풍나무를 유혹했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건 받을 수 없어. 이미 꿀벌 친구들과 일하고 있는 걸...”

아빠 단풍나무는 오랫동안 함께 하던 꿀벌들을 떠올리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말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아빠 단풍나무를 따라다녔어요. 결국 아빠 단풍나무는 힘센 말벌들의 속삭임에 넘어가 성실한 꿀벌들을 내쫓았어요.

“이야~ 시원하다”

아빠 나무는 말벌들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물을 꿀꺽꿀꺽 마셨어요. 행복도 잠시, 아빠 나무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뿌리 끝부터 서서히 썩기 시작했어요. 얽힌 데 덮친 격으로 다른 나쁜 벌레들이 아빠 나무의 썩은 뿌리 틈을 파고들었어요. 그러자 아빠 나무의 알록달록한 잎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어요.

“어... 왜 이러지? 이상하다? 내 자랑거리인 알록달록한 잎이 없어지고 있어...”

라고 말하며 아빠 나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흑흑, 우리 아빠 어떡해... 가지의 잎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빠 나무를 옆에서 지켜보던 효심 깊은 아기 단풍나무

는 속상해했어요.

그때, 코끼리 약방 선생님이 ‘검은 유혹에 빠져 잎이 시들기 시작할 때, 청렴수(水)를 마시면 예전처럼 건강한 뿌리와 잎을 가질 수 있단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기 나무는 가방에 물, 호신도구, 그리고 아빠 단풍나무의 사진을 챙겼어요.

그러고는 아빠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아빠를 구할 청렴수를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무작정 길을 나섰지만, 사실 아기 나무는 겁이 났어요. 청렴수를 얻기 위해선 무시무시한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려움도 잠시, 아기 나무는 신발 끈을 꽉 묶고 힘차게 나아갔어요.

울긋불긋한 단풍나무 숲을 지나, 노란 은행나무 숲을 지나, 조그만 다리를 건너자, 소나무의 뾰족뾰족한 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리 앞에 서 있던 소나무 문지기는 이렇게 물었어요.

“아기 단풍나무야. 여기는 무슨 일로 왔니?”

아기 나무는 무서운 목소리에 겁을 먹었지만 이내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가 아파요! 청렴수를 구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소나무 아저씨!”

소나무 문지기 아저씨는 어린 단풍나무의 모습을 기특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 어린 너에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세 개의 관문 중의 두 개를 통과해야 청렴수를 가져갈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니?”

“네! 아빠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를 내어보마. 네가 유치원에서 급식 당번을 맡은 날, 점심 메뉴로 소시지가 나왔단다.

나누어주기로 한 소시지는 3개지만, 친한 친구들이 와서

“다음 우리 당번일 때 네가 원하는 거 하나 더 줄 테니까 오늘 소시지 하나씩 더 줘!”

라고 부탁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음… 친한 친구들의 부탁이니 잠시 망설일 거 같아요. 하지만 소시지를 하나씩 더 주게 되면 마지막 순서인 친구들이 먹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기 나무의 답을 들은 소나무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 내가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그렇기에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단다.”라고 말했어요.

아기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순조롭게 풀어서 다행이다. 괜히 걱정했네! 남은 문제를 빨리 풀어서 아빠에게 청렴수를 가져다 줘야지!’라고,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두 번째 관문으로 향했어요.

소나무 숲을 지나자 커다란 연못에 도착했어요. 연못 위에 두둥실 떠 있는 연꽃 아주머니가 아기 나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발그레한 볼을 가진 연꽃 아주머니는 호호호 웃으며 아기 단풍나무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네가 그 아버지를 구하러 온 아기 나무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다가오는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아기 나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장난감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길을 가다가 네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버스 정류장에 떨어진 것을 보았어. 처음에는 주인이 가지러 오겠지,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나 지나 다시 가보았더니 그대로 있었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넌 그 장난감을 가져가겠니? 아니면 주인을 찾아주겠니?”

아기 나무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흠…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주인도 없는데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버려진 물건이었는데 설마 무

슨 일이야 생기겠어?’

깊은 고민 끝에 아기 나무는 말했어요.

“장난감을 주워서 제가 가질래요! 며칠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제가 주워서 집에 가져가도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요?”

대답을 들은 연꽃 아주머니는 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물건이라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단다. 주인이 간절하게 찾고 있을 수도 있어. 역지사지로 네가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찾아준다면 정말 기쁘겠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꼭 주인을 찾아주렴”

연꽃 아주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아기 나무는 틀린 것을 아쉬워했어요.

‘아쉽다… 조금만 더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봤다면 정답도 맞고 아빠에게도 더 빨리 청렴수를 가져다줄 수 있었을 텐데…’

연꽃 아주머니는 아기 나무에 다음 관문에 대해 귀띔하여 주었어요.

“마지막 관문은 지난 과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관문이란단다. 두 번째 관문은 실패했으니 남은 관문은 꼭 맞춰야 한단다.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아기 단풍나무야.”

아기 나무는 다음 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기 나무는 울창한 대나무 청렴숲 앞에 있는 마지막 관문에 도착했어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아기 나무는 수염이 긴 대나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나는 이 대나무 청렴숲을 대대로 지키고 있는 대장이란단다. 너에게 긴 여정이었을 텐데 대견하구나. 참으로 대단해. 마지막 문제를 꼭 맞춰야 청렴수를 가져갈 수 있단다. 허허.”

아기 나무는 대나무 할아버지의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대나무 할아버지. 저는 준비됐어요! 문제 주세요.”

대나무 할아버지는 길고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문제를 말해주었어요.

“이야기를 잘 듣고 너의 생각을 말해보렴. 산속 마을에 몇 백년 만의 가뭄이 찾아와 동물들이 쓰고 마실 물이 부족해 졌단다. 물을 관리하던 하마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양을 차례대로 마을 동물들에게 나눠준다고 선언했지. 어느 날 호랑이 이장님이 찾아와 ”이봐 하마 양반. 아무리 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너무 적지 않나? 내가 이 마을의 이장 이니 마을의 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에게 물을 좀 더 주게“라고 말했단다. 이 말을 들은 하마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 이때 하마 아저씨는 어떻게 해야겠니?”

아기 단풍나무는 문제를 듣자마자 모험을 떠나기 직전에 해준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물을 더 주면 안 돼요!”

대나무 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렴”

“말벌 청소부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성실한 꿀벌 청소부들을 쫓아내고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우리 마을을 위해서 계속 일해주던 꿀벌 청소부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아버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 채 계속해서 말벌들의 달콤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어느 순간, 아버지는 아름다운 앞을 잃고 아프게 되었고 당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마 아저씨도 크고 작은 유혹과 강한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장님이라는 이유로 물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대로 물을 나눠주어야 해요.”

대나무 대장님은 인자한 미소를 띠며 청렴수를 건네주었어요.

“자, 여기 있단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얼른 아버지께 가져다주렴. 잠깐만.”

대나무 할아버지의 마법으로 아기 나무는 집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었어요.

“아빠, 제가 청렴수 가지고 왔어요!!”

아기 나무는 시들시들한 아빠 단풍나무의 뿌리에 청렴수를 뿌려주었어요. 그러자, 아빠 단풍나무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과 아기 나무가 청렴수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빠 단풍나무는 알록달록 아름다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아기 단풍나무는 폴짝폴짝 기뻐하며 아빠 단풍나무를 꼭 끌어안았어요.

“아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해요!”

“그래, 아들이.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고맙다.”

아빠 단풍나무는 과거의 죄를 반성하며 해독 효능이 있는 단풍나무 열매를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으쌔! 으쌔!”

“애들이, 여길 봐! 단풍 열매가 맺혔어!”

일자리를 잃었던 꿀벌 청소부들도 아빠 단풍나무의 열매를 보고 다시 풍풍마을로 돌아왔어요. 말벌 청소부들은 마을에서 인심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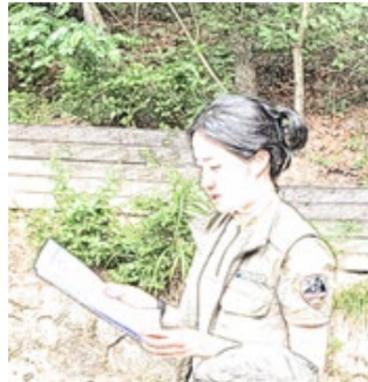
“단풍나무야, 청렴해져서 돌아왔구나.” 꿀벌 청소부가 말했어요.

“그때는 미안했어... 많이 반성하고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 아빠 나무가 말했어요.

그렇게 풍풍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피프틴 피플 (15번째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15가지 청렴이야기) | 김순영



1. 강지연(자원보전과 계장)

지연씨는 국립공원의 생태업무를 맡고 있어. 공원에 서식하는 식물, 동물 등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야. 그런데 현장에서 조사 업무를 하는 중에 산삼이나, 그보다 더 희귀한 식물을 발견할 때도 있다고 해. 만약 일을 하다가 산삼이 보인다면 건물생심이라 손이 저절로 갈 것 같은데, 지현씨와 동료들이 눈으로만 본다고 하네?!

그녀가 생각하는 청렴은 '양심'이래. 솔직히 청렴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쪽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데. 그래서 지킬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정리된 체크리스트를 수시로 따져본다고. 몰라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일상적인 점검을 기본으로 하는 거지. 스스로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쩔 더 청렴한 듯해.



2. 길성근(주민, 상가번영회장)

성근씨는 울대리 상가번영회 회장이야. 군복무를 장흥면에서 하면서 위문편지를 보내온 동네 여고생과 전역 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지. 젊은 시절 추억이 서린 곳이라 국립공원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벌써 9년째 상가번영회장이니 자타가 인정하는 리더인거지.

그가 생각하는 청렴은 '정직'이야.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다야.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배려하면 나에게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후대에는 좋은 일이 생길거라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데.

번영회장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좋은 끝이 있으려면 정직해라'는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새겨서 들었기 때문이래. 그 덕분에 송추마을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



3. 김주영(탐방시설과 과장)

주영씨는 탐방서비스와 시설업무를 총괄하는 탐방시설과장이야. 열일급살 때 지역주민의 숲 문화해설을 듣고 국립공원으로 진로를 정했는데, 신규직원 때 자연해설 업무를 배정받고 정말 신이 났었다지. 입사 후에도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은 공원관리학 박사가 되었어.

그녀가 생각하는 청렴은 '견득사의(見得思義)'래. '이로운 것을 보거든 의로운지 생각하라'는 의미라는 군. 벌써 20년차 공직생활에서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더라. 바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청렴 역량.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일은 스스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청렴이라 생각한대. 한자로는 어렵지만, 뜻을 풀어보면 쉽지?



4. 박선호(재난안전과 계장)

선호씨는 탐방객의 구조와 안전을 책임지는 레인저야. 원래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영선업무를 했었는데, 지금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자칭 장동건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에너지이저라고 불러. 자전거로 의정부에서 충주까지, 춘천까지도 거뜰히 왕복하거든. 세상에! 헌혈도 114회나 했다.

그가 생각하는 청렴은 '누구나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해. 나는 괜찮겠지 아니냐, 나도 잘못 한 일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라는군.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싫겠지라는 생각으로 먼저 한다고 해. 어쩌면 책임감은 청렴의 씨앗 같아.



5. 배정미(행정과 운영직)

정미씨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23년을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야. 본사에 근무할 때 같이 일 했던 동물을 전공한 멋진 신랑을 만나 예쁜 딸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녀가 생각하는 청렴은 '칼퇴근'이야. 아이도 키워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 워킹맘, 워킹파파에게 필요한 것은 칼퇴근. 그런데 칼퇴근을 하려면 하루 한 시간, 1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일에 집중해야 가능하데. 주어진 업무시간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온전히 공적인 업무로 쓰는 것, 그것이 청렴이라고 생각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개념을 청렴의 관점에서 보는 그녀, 너무 멋지지? 자, 여러분, 칼퇴근을 위한 집중 업무! 시작해 볼까요?



6. 배은우(도봉분소 팀장)

은우씨는 국립공원에서 탐방객이 가장 많은 도봉분소의 팀장이야. 같이 근무했던 많은 동료와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와 근무할 때 즐거운 일이 많았다고 해. X세대지만, MZ세대와도 잘 소통하기 때문이겠지. 그는 LG트윈스의 팬이면서,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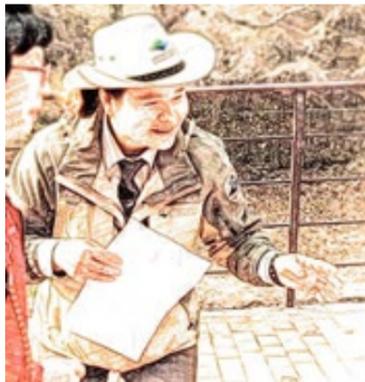
은우씨가 생각하는 청렴은 '해야 할 일들은 꼭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안 하는 것'이래. 직원들이 해야 할 것을 놓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데. 스스로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묵묵히 기다 보면 어려울 것 같은 청렴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군. 청렴과 나란히 함께 걷는 삶, 생각만 해도 멋지지?



7. 여치윤(특수산악구조대 주임)

치윤씨는 특수산악구조대에 근무하고 있어. 그는 1급 응급구조사라서 사람들이 산행을 하다가 다치면 응급처치를 중점으로 수행하지. 도봉산은 지하철에서 내리면 금방 갈 수 있는 가까운 산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려운 코스도 많아. 그래서 치윤씨는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산행 TV'도 운영하고 있어. 산행 시 주의사항과 실제 구조 장면 등을 촬영하고, 콘텐츠 마케팅도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해.

그가 생각하는 청렴은 공적인 업무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항상 성실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라.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Z세대의 장점만 모아놓은 치윤씨 답지.



8. 이수련(도봉분소 다문화해설사)

수련씨는 베트남에서 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국립공원 다문화해설사로 근무하고 있어. 해설사는 동식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하고, 말도 잘해야 해. 그 일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모범적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지. 어릴 적 힘들게 자라고, 타국 생활에서 고생이 많았지만, 그 만큼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졌다고 해.

베트남에는 "아버지의 삶을 희생하여 내 인생을 굳건히 하였다."는 속담이 있데. 그녀는 어머니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많이 찾는 도봉산이니 늘 민원이 만만치 않아. 그러나 오늘 나의 희생과 노력은 아이들에게서 가서 결실을 맺을거라 생각하며, 청렴하게 일하고, 성의를 다한다고.

그녀의 청렴은 모성이 뿌리인 것 같아.



9. 이슬이(탐방시설과 계장)

슬이씨는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 설계와 기획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뒤 기술직으로 입사했어. 입사 전 희망 근무지 조사를 했는데, 언니의 권유로 제일 가까운 남한산성을 써냈었는데. 그리고는 인재개발부에 얼마나 훈이 났는지 몰라. 전국에 23개 국립공원이 있지만, 그곳은 국립공원이거든. 어디를 가나 일복이 넘치는 그녀는 첫 근무지였던 소백산국립공원에서도 많이 바빴다고 해. 지금도 북한산둘레길과 도봉사무소 청사를 새로 짓는 일로 여전히 바쁘지.

그녀가 생각하는 청렴은 '내 몫의 값어치를 하자'야.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상품에 비해 더 비싸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보잖아? 그래서 그녀는 내가 받는 월급만큼 일을 더 잘 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대. 늘 그렇게 자기점검을 하며, 내 가치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다고. 그녀는 갈수록 더 멋진 동료가 될 것 같아.



10. 이주현(자원보전과 팀장)

주현씨는 환경분야 기술사면서 환경영향평가사야. 법도 잘 알아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라서 청탁금지법이 생기기 전에는 돈 봉투를 건넌 사람들도 있었데. 종현씨는 그 사람들에게 되레 밥을 사주고, 다독여 돌려보냈다 하더라고.

그가 생각하는 청렴은 '사적인 마음이 기울지 않게 균형을 조절'하는 거래. 종현씨는 입사 전에 독실한 불자였어. 그런데 국립공원 내 사찰에 아는 스님들이 너무 많아 원불교로 개종했다고 해.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결심을 한 거지. 스스로 생각하는 청렴의 기준은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



11. 이지현(탐방서비스과 주임)

지현씨는 탐방서비스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새내기 직원이야. 병원 응급실과 소방서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입사했지.

그녀는 어렸을 때 피아노와 가야금에 소질이 있었데. 하지만 아픈 사람을 돕고 싶어 응급구조학을 공부했다고. 지금도 출근길에 사고를 목격하면 다친 사람을 먼저 살피고 출근한대. 119상황실에서 그녀의 신고 전화 목소리를 듣고, 지현씨인지 알아챈 적도 있었다고 하네.

그녀가 생각하는 청렴은 누군가 물었을 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떳떳함'이래. 타인뿐만 아니라 스스로 찰림이 없다면 더 완벽한 청렴이라고 생각한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생명을 지키던 지원씨는 이제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그녀가 지키는 국립공원, 안심하고 방문해볼까?



12. 이진봄(사무소장)

진봄씨는 사무소의 일을 총괄하는 소장이다. 토목을 전공하고, 기술직으로 입사했지.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북한산둘레길은 이소장 덕분에 생겼다고 해. 그는 계곡변에 위치한 대규모 상가를 이전하고, 원래의 자연으로 복원하는 일도 해냈어. 공원 내 쓰레기통을 없애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한 것도 그야. 대단하지?

소장이면서 오랜 공원관리자로서 진봄씨가 생각하는 청렴은 '술선수범'이래. 누구에게 시키기 전에 나부터 먼저 하는 것을 늘 실천해 왔다고 해.

청렴을 실천하는 리더를 보면 직원들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겠지?



13. 유유희(송추분소 해설사)

유희씨는 대기업에 다니다 아이를 낳고 경단맘이 되었어. 궁궐과 국립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40대에 자연환경해설사로 입사해서 내년이면 벌써 20년차야. 그녀는 신규 해설사들에게 멘토면서 만연니 역할을 너무 잘 했어. 함께 일한 동료들은 모두 그녀를 인정하지.

그녀는 건강은 물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자연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 국립공원에 오는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 이겠지?

그가 생각하는 청렴은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야.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모든 것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에서 일하며, 알게 되었다고 해.

역시 자연은 말 없는 참 스승!



4학년 청림이의 일기 | 김정은

날짜 : 2023. 3. 2. 목요일
제목 : 내 키가 좋아요.

난 4학년인데 친구들보다 키가 작다. 9시만 되면 이불 속으로 '쑹' 들어가는데, 내 키는 늘 반에서 1번이다. 간혹,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지나가시던 할머니께서 '네가 동생이니?' 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키가 작아 좋은 점도 있다. 무엇보다 버스를 탈 때 내가 다른 어른들에 섞여 돈을 내지 않아도 버스 아저씨는 뭐라 하지 않으신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아저씨가 무서워 슬그머니 시선을 피할 때 '두근두근', '쿵쿵쿵' 하는 마음의 소리는 내 귀에 들려도,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를 반겨준다. 아직도 내가 유치원생으로 보이거나 보다.

4학년이 된 첫날, 오늘 다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역시나 무사통과.

그래서 나는 매번 용돈을 아낀다. 내 용돈은 일주일에 2,000원, 버스요금 한 번만 아껴도 분식점에서 떡볶이 한 컵은 먹을 수 있다.

날짜 : 2023. 5. 5. 금요일
제목 : 어린이날, 아빠의 노란 「소고기 카드」

아빠가 아침에 노란 카드를 높이 들고 선언하셨다.
“오늘이다. 알지?”
“야호!” ‘ 짹짹’ 오빠와 나는 손뼉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어린이날은 우리 가족이 매년 식당에서 소고기 먹는 날이다. 아빠에겐 늘 소고기를 사는 노란색 카드가 있다. 나는 그 카드를 「소고기 카드」라고 부른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다. 집에서 구워 먹는 고기보다 식당에서 먹는 고기는 더욱더 꿀맛이다.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비빔냉면을 먹은 기억을 하면 지금도 입에 군침이 '사르르' 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기를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장소도 몇 군데 정해져 있다. 평상시에는 영수증을 버리시는 아빠가 그날만큼은 휴대폰으로 영수증 사진을 꼭 찍으신다.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나보다.

몇 개 식당 중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주는 곳이 있어서, 나는 늘 거기를 가자 한다. 아이스크림은 여러번 퍼먹을 수 있어서 오빠랑 난 매번 누가 누가 더 높게 쌓냐 내기하며 바닐라, 초코, 딸기 번갈아 한 스푼씩 쌓는다.
‘오늘은 꼭 내가 이겨야지!’

날짜 : 2023. 8. 1. 화요일
제목 : 나만 아는 비밀

윤이네 가족과 여행을 간다. 윤이는 아친딸(아빠 친구의 딸)이다. 아빠와 대학교 친구다. 윤이와 나는 동갑이고 오빠들도 나이가 비슷해서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데, 어른들도 그런 것 같다. 윤이는 나와 취향도 비슷해서 만날 때마다 선물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떨 땐 둘 다 같은 물건을 사 와서 '갈갈갈' 웃었던 적도 있다. 여행계획이 잡히면 그때부터 우리는 용돈을 모은다. 1,000원 가게에서 서로가 선물 받은 모습을 상상하며 물건을 사는 재미는 쏠쏠하다.

오늘 윤이에게 매니큐어를 사주려고 이색 저색을 만지며 놀다 그만 깨고 말았다. 얼른 '두리번두리번'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두근두근' 거렸다. 1,000원이면 3일 치 용돈이 날아가는 셈이다. 저 멀리 아주머니께서 물건을 진열하고 계셨다. 내 맘속의 검은 물감이 내 마음을 덮는 것 같았다.

‘아무도 몰라. 그냥 다른 칸으로 얼른 자연스럽게 이동해.’
나는 조용히 옆의 칸으로 움직여 다른 물건을 보는척하다가 아주머니께서 멀리 가셨을 때 선물도 못 사고 뛰쳐나왔다.

날짜 : 2023. 8. 4. 금요일
제목 : 맘에 걸리는 선생님의 말씀

오늘 선생님께서 방학 특강 동아리 시간에 질문을 하셨다.
“너희가 마술쇼를 갔는데 친한 친구가 늦게 온다면 그 친구를 위해 앞자리를 맡아 두는 게 옳을까 안 맡아 두는 게

움을까?”

“실컷 놓고 와서 숙제하기 싫어도 꼭 참고 한 아이의 숙제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해, 칭찬받는 것은 바른 행동일까?”

선생님께서서는 각자 생각을 발표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수업을 마칠 때 선생님께선 말씀하셨다.

“애들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렴. 심장이 ‘두근두근’ 얼굴이 ‘화끈화끈’ 하는 신호를 마음이 보낼 땐 그 행동을 정지! 알겠죠? 마음속에 답이 있어요. 마음이 하는 속삭임을 잘 들어 보세요.”

날짜 : 2023. 8. 10. 목요일

제목 : 낯선 언니의 미소

‘폰이 없어졌다! 큰일 났다.’

‘얼마 전 엄마 아빠를 즐라 즐라 받은 스마트폰인데.....’ 친구들과도 연락이 두절. 집에 혼자 있을 때 보던 인터넷도 접속 불가. 이런 불편보다 아빠한테 혼날게 더 무서웠는데, 내 예상이 맞았다. 퇴근하신 아빠는

“너! 네 물건 제대로 안 챙겨? 그 스마트폰은 중고로 팔아도 40만원은 받는데 너 용돈 당분간 없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 ‘아빠는 나보다 폰이 더 소중한가보다. 내가 없어도 저렇게 화를 내실까? 주운 사람은 더 싫다. 나쁜 사람. 주인을 찾아줘야지! 이거 완전 도둑질이잖아!’ 속으로 욕했다.

며칠 뒤, 학원 간다고 대문을 나서는데, 문 밖 택배 상자 위에 내 폰이 있다.

‘어 내가 여기 뒀었나?’

그때 엄마 전화가 왔다. 엄마는 상기된 목소리로,

“폰 찾았지? 1004호 사는 분이 네 폰을 주어서 우리 집 앞에 두었대.”

생각을 더듬어 보니 학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 폰을 올려 두고, 랜덤 플레이 댄스를 쳤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신나게 춤을 추다가, 문이 열려 그만 폰만 두고 내렸던 게 생각났다.

‘그런데 이분은 왜 이걸 중고로 팔지 않고 돌려주셨을까?’

엄마가 퇴근하셔서 1004호 이웃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같이 가자고 했다. 벨을 누르니 예쁘게 생긴 언니가 나왔다. 수줍게 미소 짓는 언니를 보니 잠시나마 ‘나쁜 사람’이라고 욕한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가슴 속에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뜨거운 뭔가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40만 원이면 나의 몇 년 치 용돈이지?’ 갑자기 언니가 존경스러워졌다.

‘나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예쁘고 착한 언니가 돼야지!’

날짜 : 2023. 8. 14. 월요일

제목 : 부딪혔던 날

남해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물안경을 끼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 엄마는 늘 모래사장의 파라솔 아래에서 책을 읽으시고, 물속에서 노는 건 오빠와 아빠 울 셋이다. 튜브로 파도를 타는데 바닷물 속, 옆에서 놀던 언니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친다.

“제 휴대폰이 바다에 쓸려갔어요, 물안경 있으시니, 물속에 있는지 좀 봐주세요.”

파도가 너무 세어 방수파우치 고리가 떨어졌나 보다. 언니는 줄만 목에 걸려있다. 몇 번을 찾았지만 폰은 안보였고 언니들도 포기했는지 사라졌다.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남해 바닷물은 차가웠다. 아빠는 모래짐질을 하시며,

“빙하가 녹는다더니 정말인가, 예전에 남해 바닷물은 이렇게 차지 않았는데..... 그나저나 아까 그 여대생들 여행 와서 폰을 잃었으니 여행비 50만원은 날아간 셈이네. 찌찌” 하셨다.

잠시 후 우리 셋은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 파도를 타면서도 아까 언니들 생각이 나서 의식적으로 자주 바닥을 보게 되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 저게 뭐지?’ 물속 바닥에 휴대폰 비슷한 것이 보였다.

“찾았다. 찾았어!”

우리는 마치 보물을 찾은 듯 손에 휴대폰을 들고, 해변으로 정신없이 뛰쳐 달려 나왔다. 아까 그 언니들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바닷가에 사람들로 넘쳐난다. 휴대폰 첫 화면에 연락처가 있었다. ‘걸어볼까 말까.’ 막상 언니 얼굴이 안 보이니 평소에 갖고 싶었던 접이식 폴더 폰이 탐 났다. ‘두근두근 쿵쿵쿵’ 갑자기 내 심장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나의 마음의 소리, 마음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난 얼른 고개를 세차게 휘저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음 여행지로 이동해야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인근 경찰서에 폰을 맡겼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하는데 폰 주인한테서 전화가 왔다. 폰을 찾았나보다. 자기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못 즐기신 것 아니냐고, 덕분에 마지막까지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말 고맙다고 여러번 인사를 했다. 언니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엄마 전화를 통해 들으니 가슴이 부듯하고 벅찼다. 문득 얼마 전 내가 폰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의 기뻐했던 감정과 그때 그 언니의 미소가 떠올랐다.

‘거봐~ 너도 할 수 있잖아’

진주 같은 은은한 무지갯빛 언니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날짜 : 2023. 9. 1. 금요일

제목 : 이거 너무하잖아.

2학기 시작이다. 선생님께서 한 달 뒤 반장선거가 있으니 준비할 친구는 미리미리 연설문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작년에 우리 반이었던 친구들, 재작년에 우리 반이었던 친구들... 세어보니 가만히 있어선 반장이 못될 것 같다.

‘반장이 되면 엄마가 용돈 10만원을 준다는데. 좋은 수가 없을까...’ 고민하는데, 은혜가 허겁지겁 달려와 날 불렀다.

“청림아 청림아, 너 이번에 반장선거 나가? 안 나가면 가희 밀어주자. 가희가 이번에 나간다는데, 자기 뽑아주면 2천원씩 준대.”

“응? 자길 뽑아주면 돈을 준다고? 그건 정당한 반장선거가 아니잖아~ 그런데 어딴?”

나도 만약 친구들에게 가희처럼 돈을 돌려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 전체가 30명이니 2,000원씩 줘도 나한테 4만원이 남는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다. 며칠 전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심장이 두근두근 얼굴이 화끈화끈 하는 신호를 마음이 보낼 땐 그 행동을 정지!”

‘청림아. 그래..... 정지하자. 정지!’

날짜 : 2023. 9. 11. 월요일

제목 : 내 마음의 소리

난 친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급식 배식, 우유 당번, 선생님 심부름 등을 도맡았다. 반장 연설문도 정성들여 준비했지만, 왠지 뇌물을 돌린 가희가 반장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 놀랍게도 내가 반장이 되었다. 나도 결과에 깜짝 놀랐다. 득표수도 꽤 차이가 났다. 은혜가 와서 귓속말로 속삭였다. “나도 너 뽑았어~” 그리고는 눈을 찡긐했다. 뭔가 당당하게 반장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날 믿고 뽑아준 우리 반 친구들이 정말 고맙다.

‘부모님께서도 엄청 기뻐하실 테고, 용돈도 받겠지?’

새로 나온 ‘파인애플 탕후루’가 맛이 궁금하고 먹고 싶었는데, 이번에 사 먹을 수 있겠다.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 신이 났다. 그때 선생님의 환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음속에 답이 있어요. 그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이 두근두근할 때는 정지!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날짜 : 2023. 10. 4. 수요일

제목 : 내 생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친구들과 슬라임 카페에서 생파(생일파티)를 한다. 은혜, 가희, 나 셋이 가기로 했다. 버스를 타는데 나처럼 키가 작은 가희가 은근슬쩍 어른 옆에 끼여 타려고 시도하는 게 보였다. 난 재빨리 가희보다 앞서 타며 교통카드를 내밀었다.

“아저씨 초등학생 두 명이요.”

토끼처럼 놀란 모습을 한 가희의 모습을 모른척하며, 가희의 팔짱을 꼭 끼고 얼른 버스를 올라탔다.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다른 떨림이었다.

저녁은 언제나처럼 가족과 소고기집으로 향했다. 타지에 근무 중인 아빤 내 생일이라고 일부러 휴가를 내셔서 집에 오셨다. 아با께 오늘 있었던 일, 최근 반장선거 사건을 얘기했다. 아빠는 흐뭇해하시며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셨다. 오빠도 밀렸던 학교생활을 쉴 새 없이 얘기하기 바빴다.

잠시 후, 계산하시는 아با께서 오늘은 다른 색 카드를 꺼내셨다.

“어~! 아빠, 노란 소고기 카드네요?”

아빠는 내 질문엔 답이 없이 빙그레 웃으시며,

“1004의 날 태어난 청림아 생일 축하해!” 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근거림은 대체 무엇일까?’

‘나한테만 있는 걸까? 친구들에게도 있는 걸까?’

문득 궁금해져 아با께 여쭙봤다.

“청림아,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양심이란대.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이지.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렴, 그럼 청림이 다운 삶을 살 수 있을거야.”



페어트리(Fair Tree)

| 이지연

“이대로라면 청렴나무는 곧 사라질거야... 그러면 우리 모두도 사라지겠지.”

아빠는 한숨과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2,123년, 몇 번의 우기와 한 번의 빙하기에도 인류는 살아 남았다. 신의 마지막 가호인건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렴나무라 불리는 페어트리 덕분이었다. 쏟아져내리는 비와 눈에서도 살아남은 페어트리는 연구대상이 되었고, 페어트리가 발산하는 공기와 뿌리에서 얻을 수 있는 연료가 인류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페어트리가 중요함에도, 페어트리를 어떻게 하면 지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인류는 한동안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우연히 한 소녀의 발견으로, 페어트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밝혀진다. 사회에서 청렴의 가치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이 많이 나타날수록 페어트리가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몇 번의 우기와 빙하기를 거치며 부정부패와 각종 부조리가 사회에 더욱 많이 퍼졌다. 사람들의 균열된 마음의 틈새로 양심과 정직, 공정 등의 가치는 파고들지 못했다. 그렇게 페어트리는 한 그루 한 그루 말라죽어갔다.

페어트리가 말라죽어가는 광경을 아빠는 매일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아빠는 페어트리를 관리하는 페어트리 관리업체의 직원이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페어트리를 좋아했다고 한다. 꿈도 페어트리 꿈을 꿀 정도인데, 그런 아빠에게 페어트리가 계속해서 말라죽는 광경은 마음이 아플 수 밖에 없다. 페어트리가 말라죽는 속도는 더욱더 가속도가 붙어갔고, 아빠의 미간에는 주름이 더욱 깊어져만 갔다.

나도 페어트리를 아빠 못지않게 좋아한다. 어렸을 때는 페어트리 이파리를 가지고 매일 놀았다. 정직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페어트리 이파리는 약간의 빛을 내면서 더욱 생기가 돈다. 그 모습이 좋아서 매일 매일 페어트리만 바라봤다.

페어트리가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삼시간에 번졌다. 아침마다 확인하는 VR을 켜고 페어트리 식생지도를 확인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페어트리 서식지가 또 3% 줄었어. 봤어?” 페어트리 식생지도 VR

을 켜 주희가 옆에 와서 말을 건다. “이거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주희가 불안하게 중얼거린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뭔가 아주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고 싶다. 그렇지만, 이미 부정부패와 부당함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과연 정말로 페어트리를 살릴 수 있을지 자꾸만 의구심이 든다. 나 하나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행동한다고 정말로 죽어가는 페어트리를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그냥 결국에는 아무 소용없을 거라는 두려움. 이 시대에 정말 페어트리를 살려낼 수 있는 양심과 공정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

우울한 마음을 가득 안고 플라잉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 주희는 여전히 옆에서 페어트리 얘기를 한다. 그리고 주희는 비밀스럽게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한다. “저 늑지대 뒤에 페어트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대.” “그렇지만 거긴 갈 수 없는 곳이잖아.” 나도 덩달아 속삭이듯 말했다. 몇 번의 우기를 지나며 도시 곳곳에는 늑지대가 많이 생겼고, 늑 근처에서는 흥흥한 일들이 잇달아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늑 근처는 폐쇄구역이 되었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페어트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그 소문이 진짜고 그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안다면 어쩌면 이것은 페어트리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 가볼래.” 주희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어딜 가? 설마 늑지대 뒤는 아니지?” 대답이 없는 나를 보며 주희가 다그친다. “야,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한 거 너야. 너 알잖아 거기 못가는 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마지막 희망일지도.” 주희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말이 없다. “너 진짜 갈거지? 말려도 안 들을거지?” 대답이 없는 나를 주희는 지그시 바라보더니 결심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데려가. 같이 가.”

새벽의 희부연 빛이 밝아오는 시간, 백팩을 맨 주희가 비장한 표정을 하고 우리 집 앞에 서있었다. 아빠가 깨지 않게 조용히 나오느라 거의 기어가다시피 나온 나를 주희가 바라보았다. “정말 갈 거지..?” 다시금 묻는 주희에게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주희와 나는 늑지대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주로 플라잉버스를 타고 다니는 우리에게 흙길을 걷는 느낌은 색달랐다. 터벅터벅 걷는 우리 뒤로 해가 떠오르고 늑지대 너머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늑지대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도 더 험난했다. 주희와 내가 몇 번을 물웅덩이에 발을 헛디디며 비틀거릴 무렵, 우리 앞에 늑지대 너머의 표지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지판은 매우 낡고 오래되어 변색되어 있었다. 늑지대 너머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따라 계속 걸었지만, 사방이 짙고 어두운 안개가 가득해서 맞게 가는 건지는 혼란스러웠다.

한참을 헤매던 우리 앞에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주희와 나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 아마도 최면가스를 사용한 듯 하다. 눈을 떠보니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우리를 살펴보고 계셨다. 할머니의 옷에는 페어트리를 형상화한 듯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무슨 일 때문에 늑지대 뒤로 오게 된거냐?” 할머니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페어트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의 말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나와 주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할머니를 따라 뒤로 향하니 밝은 공간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엄청난 수의 페어트리 군락이 자리잡고 있

었다. 나와 주희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놀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거죠? 페어트리 서식지도에는 이러한 규모의 페어트리가 보이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그 말에 심술궂게 웃으며 말했다. “그 지도는 늪지대 뒤편까지는 측정할 수 없다. 안보이는 게 당연하지.” “여기로 오면, 페어트리를 살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은 미묘해졌다. “늪지대 밖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냐?”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자꾸 자꾸 페어트리가 죽어가기니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겠지. 내가 늪지대 밖 사람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그들은 실천하지 않고 있으니깐.” 할머니는 무엇을 전달했다는 걸까. “설마... 할머니가 그 소녀예요? 페어트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법을 발견했다는...?” 할머니는 말을 잊지 않고 그저 나와 주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오래된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나무를 지속해서 살리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던 소녀, 지금의 할머니는 청렴한 가치들에 반응하는 페어트리의 특징을 발견하고 날 듯이 기뻐했다고 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늪지대 밖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청렴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 갑질, 불공거래, 부당함. 할머니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페어트리를 살려야 한다고, 청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의견을 주장했지만, 늪지대 밖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할머니는 하루, 이틀, 일주일, 몇 년을 그렇게 공허한 외침을 이어갔다. 그리고 점차 포기하기 시작했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 지친 할머니는 뜻이 맞는 이들과 늪지대까지 오게되었고, 늪지대 안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다. 그렇게 늪지대 안에는 기존의 페어트리와 할머니와 사람들이 들고온 작은 페어트리 식수들까지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저 대규모의 페어트리 군락이 되었다고 한다.

할머니의 긴 얘기를 듣고, 늪지대 안 사람들이 문득 나는 궁금해졌다. “늪지대 안 마을을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망설이는 듯 보였던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근처에 있던 검은 옷의 남자를 불렀다. 그리고 그의 안내로 우리는 늪지대 안 마을로 들어섰다.

늪지대 안 마을의 모습은 놀라웠다. 많은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정하고 청렴이 지켜지는 사회였다.

“어떻게 이렇게 청렴한 가치가 지켜질 수 있죠?” 나는 할머니를 향해 물었다.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깊이 있게 듣고, 일상 속에서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조금씩 실천해나가는 게지. 그게 다란다.”

할머니의 말씀은 내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나 혼자 공정하고 청렴하게 양심을 지킨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일상 속에서 조금씩 나와 또 다른 나가 힘을 모아서 실천하면 어찌면, 페어트리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것. 그렇게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서 움트었다.

주희와 나는 그러나 늪지대 밖 마을에서 페어트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전히 막막했다. 우리의 표정이 여전히 어두워보였는지 할머니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다. “고민이 있는가보구나.” “늪지대 밖 마을에서 어떻게 해야 페어트리를 살릴 수 있을지 막막해요.” “정말 페어트리를 살리고 싶은 게냐?” “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굳게 다짐한 나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늪지대 안의 사람들이 도와주마.”

약간은 녹이 슨 격납고 문을 열자, 구형 플라잉카 모델들이 나타났다. “언젠가는 필요로 하는 날이 올 거 같았지.” 할머니가 플라잉카의 조종석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모는 플라잉카를 타고 우리는 늪지대 위를 날아올랐다.

그렇게 우리가 늪지대 위를 날아올라 늪지대 밖 마을로 돌아온 날, 늪지대 밖의 페어트리는 고작 7%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를 애타게 찾던 가족과 사람들은 낡은 플라잉카를 타고 날아온 우리를 어리둥절하고 또 일종의 경계심이 담긴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 뒤의 일은 일종의 꿈만 같다. 페어트리 식생지도 분포가 10% 이하로 떨어져,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은 늪지대 밖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으로 늪지대 밖 사람들은 안 사람들의 말에, 그들이 들고온 어린 페어트리 나무의 모습에 귀를 기울였다. 직접 키우고 움을 틔운 어린 나무들의 모습에 늪지대 밖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표현했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그 이후 늪지대 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늪지대 밖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를 실천했다. 나부터, 내가 먼저, 나라도 공정하고 청렴하게 일상속에서 양심을 지키고자 했다. 그렇게 변화는 느리지만 꾸준했고, 하나 하나의 마음들이 모여서 더 큰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페어트리를 다시 자라게 했다. 오랜만에 페어트리 식생지도가 감소 표시가 아닌 증가 표시가 나타나던 날, 나와 주희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물론 변화가 쉽지만 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냐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그렇지만 그렇게 흔들리면서 청렴과 공정 그리고 양심의 가치들은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았다. 그리고 어느덧 페어트리 식생지도는 30% 수준을 웃돌았다.

지금은 2,123년, 몇 번의 우기와 한 번의 빙하기에도 인류는 살아남았고, 청렴과 공정과 양심으로 다시 자라난 페어트리와 함께 우리는 다시 한 번 살아남고자 한다. 나도 주희도, 그리고 당신도 함께.



흑염소의 검은 마음 | 최윤선

화창한 어느 날, 동물 친구들이 모여 사는 한로마을이 있었어요. 흑염소는 동네에서 유명한 목수였어요. 마을 동물들은 고칠 것이 있으면 흑염소를 찾았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도시로 건너갈 다리가 무너졌어요. 한로마을의 거북이 이장님은 다음 달에 있을 딸의 결혼식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흑염소에게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다리만 잘 만들어준다면 내가 좋아하는 풀은 내가 많이 줄게”

“감사합니다. 이장님. 금방 만들겠습니다.”

흑염소는 다음 날 다리 만들기에 필요한 나무를 구하기 위해 원송이의 나무 공장에 찾아갔어요.

“원송이야. 이게 제일 저렴한 나무지? 이걸로 준비해 줘”

“이런 나무로 다리를 만들면 금방 무너질 텐데 괜찮을까?”

“이 정도로 설마 무너지겠어? 바나나 챙겨줄게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

원송이는 흑염소의 어두운 속삭임에 넘어갔어요.

다음날, 다리를 만들기 시작한 흑염소는 혼자 생각했어요.

‘에이~ 홍수가 설마 또 나겠어? 귀찮은데 대충 만들어야겠다.’

일주일 뒤 흑염소는 다리를 완성했으니, 모두에게 편하게 다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거북이 이장님의 딸이 결혼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마을 주민 모두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모두가 이동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앞서가던 동물 친구들은 큰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어요. 흑염소가 만든 다리는 무너져있고 고양이 가족들이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거북이 이장님은 바로 물에 뛰어 들어가 고양이 가족을 구했어요.

고양이 가족이 정신을 찾은 뒤, 거북이 이장님은 다리가 무너진 이유를 묻기 위해 흑염소에게 호통쳤어요.

“흑염소! 원송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황한 흑염소는 풀숲으로 도망쳤지만 뒤따라온 동물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흑염소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소리쳤어요.

“난 잘못이 없어! 원송이가 약한 나무만 팔아서 다리가 무너진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원송이 사장님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흑염소 네가 나한테 약하고 값싼 나무를 가져갔잖아? 왜 내 탓을 해?”

“너도 맛있는 바나나 먹었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둘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거북이 이장님은 다른 동물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하고 둘만 불렀어요.

“우리 한로마을에는 너희들 같은 거짓말쟁이들은 발붙이고 살 수 없어. 당장 마을에서 떠나!”

남겨진 흑염소와 원송이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분명히 그 나무로는 안된다고 했지? 그리고 우리 영원히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갑자기 왜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너도 바나나 주니깐 좋아했잖아. 왜 너만 착한 척이야!”

의견을 좁히지 못한 둘은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났어요.

혼자 남은 원송이는 옆 동네 돌로마을로 갔어요.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돌로마을 사람들은 원송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원송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돌로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원송이를 비난했어요. 그 모습에 놀란 원송이는 꿈지 빠지게 도망쳤어요. 그렇게 원송이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 떠도는 삶을 시작했어요.

쫓겨난 흑염소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어요. 흑염소는 세로마을로 찾아갔어요. 세로마을의 이장님은 흑염소에게 사막의 경비 근무를 시켰어요.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사막이지만, 흑염소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흑염소에게는 사막 경비의 일은 많이 어려웠어요. 또, 한로마을과 다르게 세로마을은 흑염소가 살아가기 힘들었어요.

“세로마을은 낮엔 덥고 밤엔 춥고 물도 없고 정말 살기 너무 힘들다. 한로마을이 좋았는데... 정직하게 다리를 만들었다면... 내가 이런 고생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흑염소는 하루하루 후회하며 한로마을을 그리워했어요. 사막의 뜨거운 햇빛에 지친 흑염소에게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환상 속에는 흑염소가 꿈에 그리던 한로마을이 있었어요. 무언가에 홀린 듯 흑염소는 한로 마을이 보이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로 마을이 사라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 내 눈앞에 한로 마을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내 한로마을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러다 환상에서 깬 흑염소는 눈물을 흘리다가 너무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편, 떠도는 생활을 하던 원송이는 흑염소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흑염소가 세로마을에서 경비일을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원송이는 세로마을에서 받아줄거라고 생각해 세로마을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로마을로 향하던 중 쓰러져 있는 흑염소를 발견했어요. 원송이는 깜짝 놀라며 흑염소를 깨웠어요.

“이봐! 흑염소! 정신차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왜 여기 쓰러져 있는 거야? 원송이 너는 왜 여기 있어?”

“나는 살 곳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다가 세로마을에서는 정착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네가 여기 쓰러져있길래 내가 깨웠어.”

오랜만에 만난 흑염소와 원송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갈 곳이 없어진 흑염소와 원송이는 어쩔 수 없이 한로마을로 돌아갔어요. 한로마을에서는 무너진 다리를 다시 고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목수가 없어 제자리걸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원송이와 흑염소는 마음이 아팠어요.

“원송아, 우리가 마을 주민들을 돕는 건 어때?”

“하지만 우리가 돕겠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면 밤에 몰래 도와주자!”

그렇게 둘은 매일 밤마다 조금씩 다리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다리를 보고 이상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리는 조금씩 완성되어가고 있었어요. 우연히 밤 산책을 하던 부엉이는 흑염소와 원송이가 다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날 아침 다리는 결국 완성되었고, 부엉이는 밤에 본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말했어요.

“밤에 다리가 조금씩 지어지던 게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흑염소와 원숭이가 만들고 있더라고.”

부엉이의 말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흑염소와 원숭이가 만든 다리는 믿을 수 없어.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로마을의 주민들 모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태풍은 한로마을의 건물과 도로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한로마을의 집과 학교, 주민들이 사용하는 우물까지 모조리 부서졌지만 흑염소와 원숭이가 만든 다리는 멀쩡했어요. 그걸 본 마을 주민들은 깜짝 놀라며 흑염소와 원숭이를 찾았어요.

마을 주민들을 만난 흑염소와 원숭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며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친구들아. 너희를 속이고 다리를 대충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줄래?”

거북이 이장님이 대답했어요.

“이렇게 큰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만든 것을 보면, 둘은 확실히 반성한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돌을 반기기엔 마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그렇다면 저희도 마을 주민들을 도와 한로마을의 고장 나고 부서진 것들을 같이 고칠게요.”

둘의 도움으로 한로마을은 금방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흑염소와 원숭이는 마을 주민들의 따뜻하고 넓은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후,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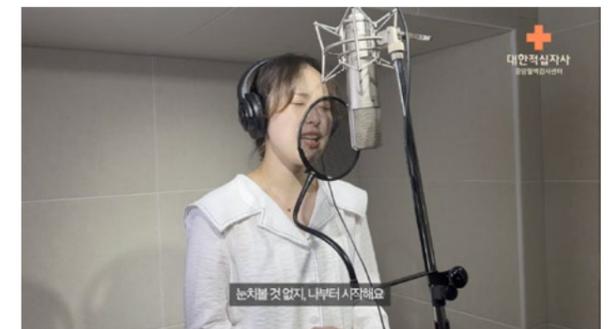
영상 부문

대상	함께해요, 청렴세상
최우수상	나부터 실.행.함
최우수상	SO SIMPLE
우수상	별일 없는 직장 생활 - 청렴 공정 평등 바르게 푸르게
우수상	청렴의 6덕목
우수상	Clean Everyday
장려상	청렴의 온도
장려상	청렴, 공정, 행복
장려상	청렴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장려상	함께 만드는 청렴한 세상



함께해요, 청렴세상

|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팀)



※ 수상작 영상 풀버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나부터 실행.함
| 울산항만공사(팀)



SO SIMPLE

| 김지은



※ 로고송 수상작은 QR코드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상

별일 없는 직장 생활 - 청렴 공정
평등 바르게 푸르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팀)



청렴의 6덕목

| 박보라



※ 로고송 수상작은 QR코드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Clean Everyday

| 황승현



※ 로고송 수상작은 QR코드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상

청렴의 온도
| 서울주택도시공사(팀)



청렴, 공정,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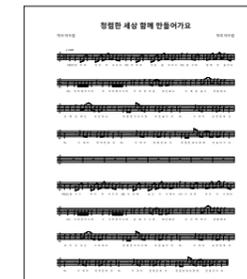
| The설렘(팀)



※ 로고송 수상작은 QR코드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청렴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 이수겸



※ 로고송 수상작은 QR코드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청렴한 세상

| 채창현



※ 로고송 수상작은 QR코드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3

디자인 부문

대상	청탁없는 대한민국 자랑스런 희망한국
최우수상	공정한 세상 청렴한 나라
최우수상	흰 옷과 청렴
우수상	가치있는 양심
우수상	승진 축하해 김대리
우수상	나의 채용일지
장려상	가치로 빛나는 청렴한 일상
장려상	부패공주와 일곱난쟁이
장려상	천하제일 청렴대회
장려상	어머니의 봉투



청탁없는 대한민국 자랑스런 희망한국
| 주경아



공정한 세상 청렴한 나라
| 박영옥



흰 옷과 청렴
| 김진실

나는 흰옷을 좋아하지만, 흰옷은 어렵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유혹들과 넘쳐나는 위험들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흰옷은 지키기 어려웠다...

아무리 조심조심 먹어도 유독 흰옷입은 날 더 묻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묻은 얼룩이 더 티가 나서 흰옷을 깨끗히 유지하며 입기 힘들다...

놀이터에서 놀때 바다를 보고 알아야지...

비올 때는 고여있는 흙탕물을 조심해서 다녀야지...

와이셔츠 소매길 목부분은 먼저 손발레하고 팔레에야 깨끗해진다...!

많은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서 조심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나는 **청렴**을 좋아하지만,
청렴은 어렵다...



어렸을 때부터
청렴은 지키기 어려웠다...



많은 가르침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나쁜 행동들은 고쳐나갔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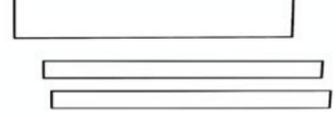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유혹들과
넘쳐나는 위험들이 있어...



아무리 조심조심하며
행동하더라도 놓칠 때가 있고...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잘못이 시작될 수 있기에...



지금 일이 힘들겠지만
연세 그랬나듯 너만의 방법을 터득하고
잘 헤쳐나갈거라고 믿어는 말이!

맞아.. 청렴도 원웃과 같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계속 나를 따라다닐거야...



나는 오늘도 원웃을 지킨다.
청렴을 지킨다!



가치있는 양심

| 이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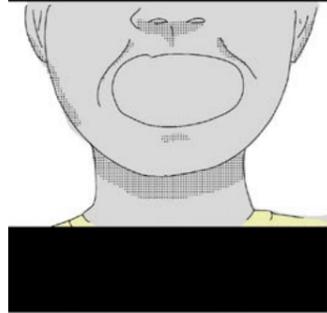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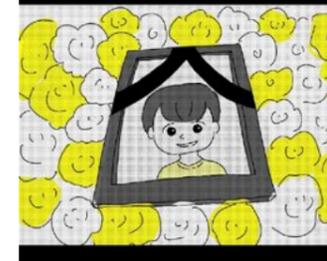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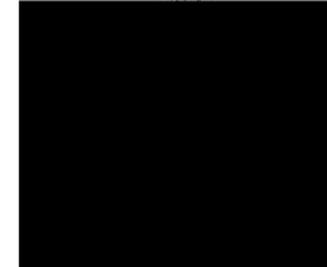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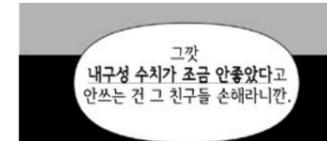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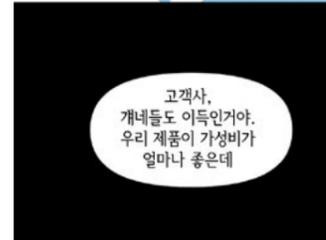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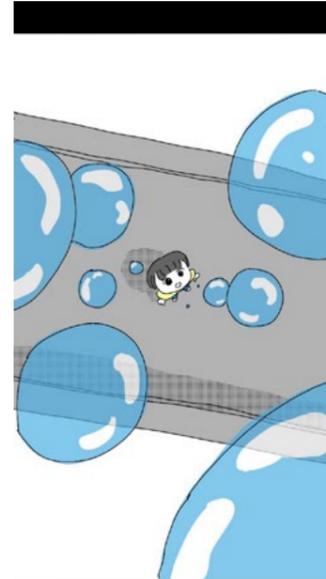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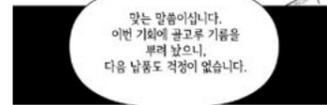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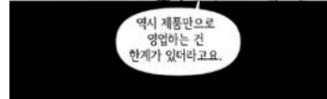
승진 축하해, 김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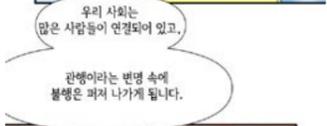
| 김선엽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 회사, 사건들은 모두 허구입니다. 실존하는 인물, 회사, 사건들과 일질 관련이 없습니다.



승진 축하해, 김대리
클/그림 선엽





청렴의 가치를 실현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이 아이가 살아갈 사회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고민하고 바뀌어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깨끗하고 반듯한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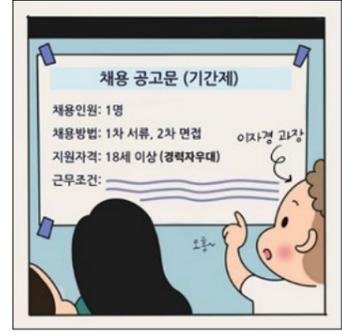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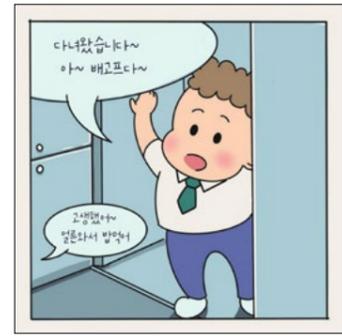


더 늦기 전에
같이 만들어 가요,
깨끗하고 청렴한 세상



나의 채용일지

| 이수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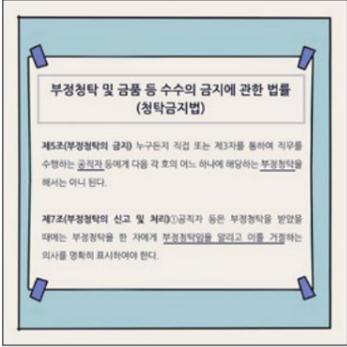
서류 전형 합격

이의신청	성명	점수	합격여부
0010	김○○	90	합격
0011	이△△	77	불합격
0012	박□□	68	불합격
0013	이피랑	82	합격
0014	최△△	78	불합격



가치로 빛나는 청렴한 일상

| 홍수민



이미정 최종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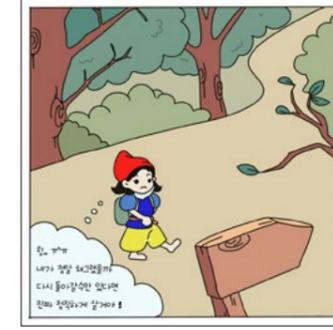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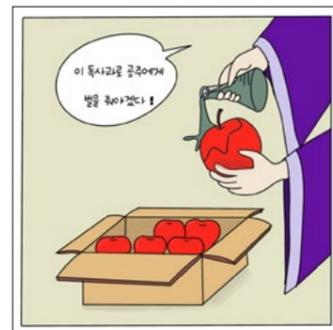
수험번호	성명	점수	합격여부
0010	김○○	85	불합격
0013	이미정	86	합격
0019	박☆☆	72	불합격





부패공주와 일곱난쟁이

| 김영은





천하제일 청렴대회

| 박상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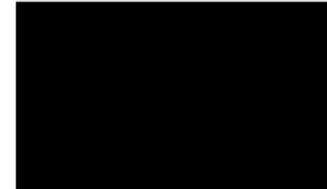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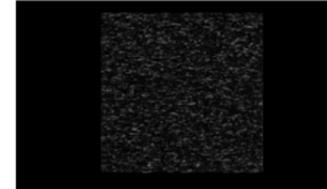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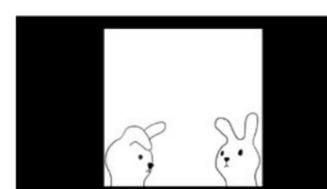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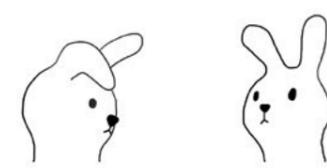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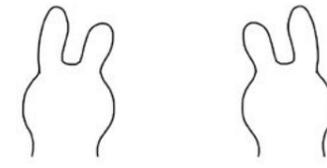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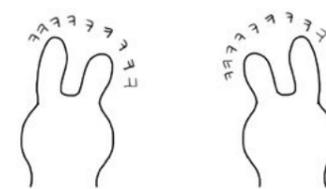
천하제일 청렴대회



어느날,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다.



아 그거.. 신청은 했는데 쟁쟁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잘안될 것 같아.



무심코하는 나의 행동. 다른 사람들이 볼때도 괜찮은 것 일까요? 청렴의 가치. 스스로 지켜나갈때 입니다.



어머니의 봉투

| 서용남

어머니의 봉투





사실 그 봉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주변
분들에게 전해
주시던 건데



저도 그 뜻을 이어
주변분들께 청렴함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계속 그 꽃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제 말을 살피
주시듯



모든 아이들을
공정하게 사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울러
그 꽃말은
오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하는
청렴·^한세상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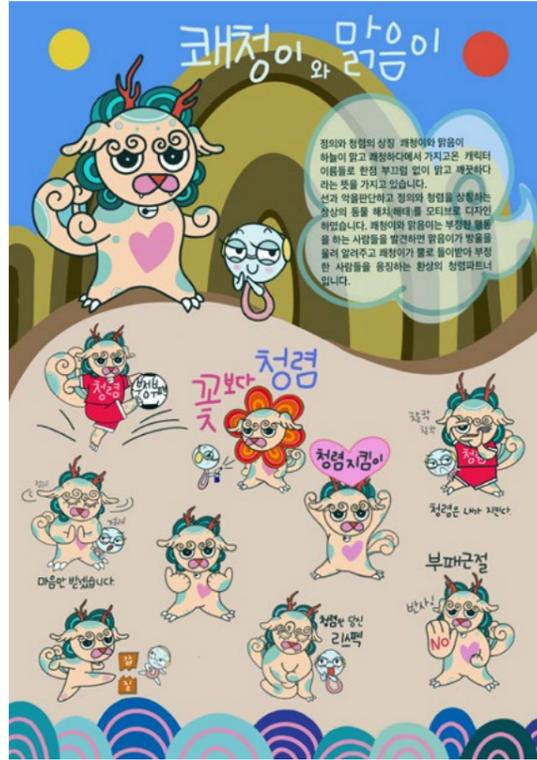


캐릭터 부문

대상	청렴지킴이 쾌청이와 맑음이
최우수상	청렴을 지키는 알약 용사! 청용이
최우수상	풍천이
우수상	청량이와 청열이
우수상	회사원 여우
우수상	웅야&호야가 전하는 오늘의 청렴날씨 : 맑음!
장려상	청렴 1급수에서 태어난 청이와 럼이
장려상	청렴동이와 해청이
장려상	청렴 타이거
장려상	청렴정신 사군자 다힘이와 별내



**청렴지킴이
쾌청이와 맑음이**
| 박규태



풍천이
| 최다혜



청렴을 지키는 알약 용사! 청용이
| 박성민



청랑이와 청열이
| 김강민





우수상

회사원 여우

| 김혜정



장려상

청렴 1급수에서 태어난 청이와 럼이

| 김은정



우수상

웅야&호야가 전하는 오늘의 청렴날씨 : 맑음!

| 오유진



장려상

청렴동이와 해청이

| 김재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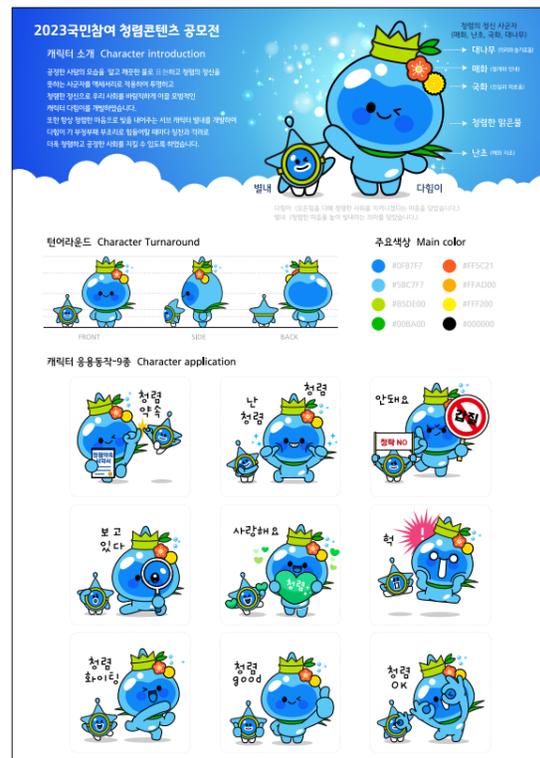
청렴 타이거

| 송지훈



청렴정신 사군자 다힘이와 별내

| 윤상태



05



백일장 부문

대상	청렴한 선거
최우수상	정직한 씨앗을 키우자
최우수상	정직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우수상	정직에 대한 나의 경험
우수상	정직의 등산로
우수상	정직하면 좋은 점
장려상	바보같던 나
장려상	정직한 기호 3번
장려상	청렴
장려상	내 마음에 정직한 씨앗



정직의 등산로

| 김수연

정직의 등산로

김수연

이 세상을 떠도는 구름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우리는 그 이
 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웃을 때, 웃
 을 때 등 언제나 구름은 내 옆에 있어
 주었다. 구름은 오늘 무엇에 대해 이



바보같던 나

| 장예슬

바보같던, 나.

장예슬

여칠 권,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그중에 어떤 친구가 열쇠고리를
 꺼내었다. 우리는 신기해서 서로 해보
 겠다고 하였다. 내가 가장 먼저 하는데,
 딴 생각을 하여 만지다가 열쇠고리가



정직하면 좋은 점

| 유예은

정직하면 좋은 점

유예은

학교나 집 밖에서 만이 단 락 부 부 단
 게 말 할 때 정 직 하 지 부 하 게 말 할 때
 가 있다. 그럴 때 마 다 양 신 에 쫓 리 지 만
 부 부 단 게 언 달 가 무 서 워 서 사 실 대 본 말
 하 지 못 해 다. 나 의 만 그 림 수 경 험 들 과 그 림
 처 기 았 은 경 험 들 을 이 소 개 해 볼 러 기 한 다.



정직한 기호 3번

| 정이든

정직한 기호 3번

정이든

4학년이 끝나고 1학기 전교임을 선
 거가 열렸다. 아이들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선거를 준비했다.
 선거에 출마한 것은 나도 마찬가지
 였다. 1학년 때부터 끝까지 일이 있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청림

| 천시아



내 마음에 정직한 씨앗

| 하주한



※ 백일장 부문 수상작은 QR코드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본 수상작품집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